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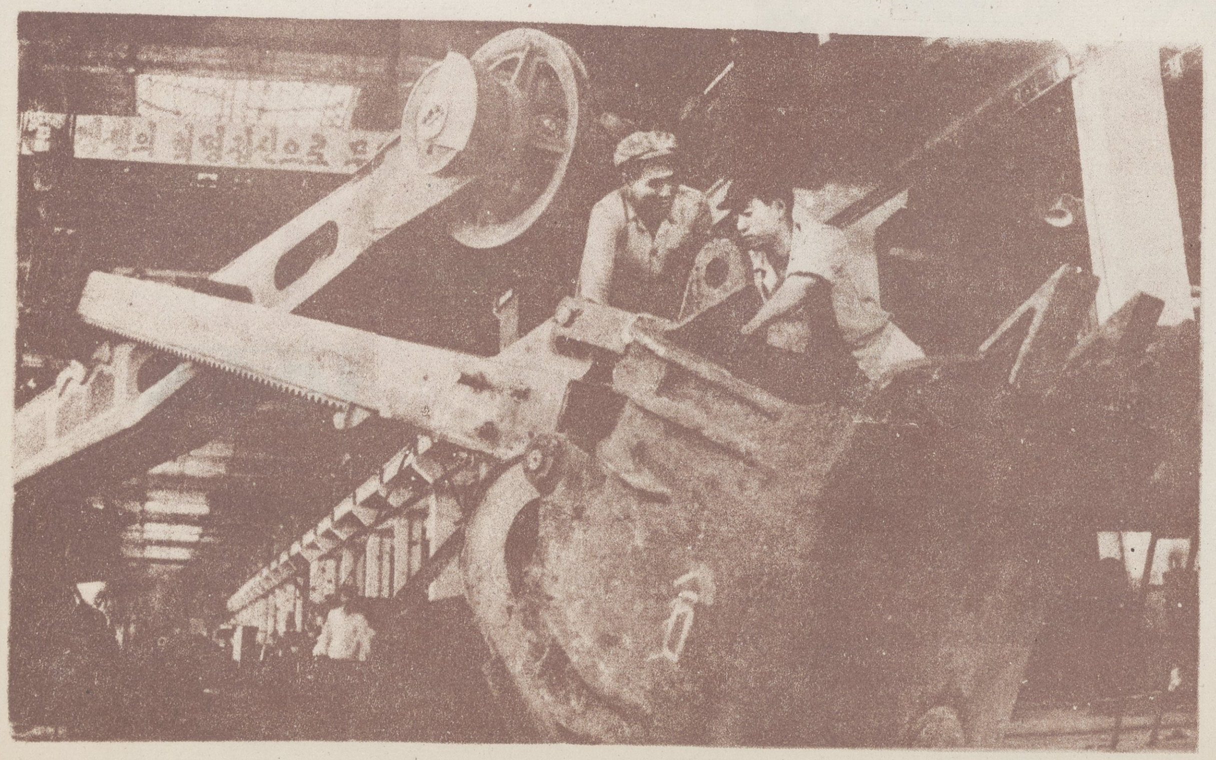
11
1964

10대 과업 관철을 위하여



☆ 10 대 과업 관철에 떨쳐 나선 함흥 뜨락또르 수리 공장 로동 청년들은 뜨락또르 수리 기일을 단축하기 위하여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작업을 흐름식으로 조직함으로써 년초보다 수리 기간을 1.3 배로 줄이였다.

만능 다쁘를 비롯한 선진 공구와 기술 혁신안을 실지 작업에 적용하여 엑스까와또르 대당 조립에서 5 배의 능률을 올리고 있는 락원 기계 공장 청년 직장 리 봉기 천리마 작업반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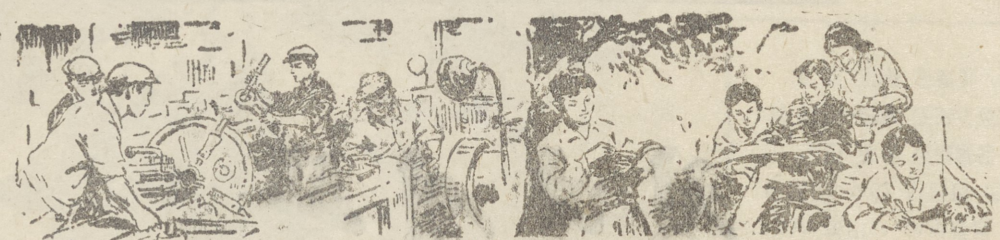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964. 11



차 례



표지—전체 인민이 무장하자



사회주의 건설과 로력 문제

로 동 상 백 선 일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을 떠나서, 수백만 대중의 목적 의식적인 로동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로력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조직 사업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에 매우 어렵게 살았다. 이 어려운 처지에서 급속히 벗어 나기 위하여서는 로동력의 자연적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공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부문을 창설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본래 기술이 락후하였고 선진 기술과 기능을 습득한 인재가 부족하였다. 또한 단일한 민족 경제 체계가 남북으로 갈라 짐으로써 로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구 상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존재하며 특히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우리 나라에서 로력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심각하게 제기한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로력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된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중요한 로력 문제는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로동 정책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로력적 열성에 의하여 제때에 해결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로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조건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업을 근절하고 사회적 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대시키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 왔다.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전 사회적 규모로 볼 때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지고 국민 소득도 증대되여 인민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 우리 당이 취한 정확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일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로력 문제 해결에서 로력의 량적 장성과 함께 그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는 데도 큰 관심을 돌려 왔다. 우리 당의 정확한 민족 기술 간부 육성 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20여만의 기술자, 전문가들과 100여만의 고급 기능공들의 대부대가 육성되였다. 로동자들의 정치 사상 및 기술 문화 수준도 급격히 제고되였다.

이러한 사정들로 우리 나라 로력의 질적 구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기초하여 로력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과 건설에 인입하여 인민 경제 부문간, 지역간, 생산 공정 간에 균형적으로 조절 배치하며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합리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로력 류동을 방지하고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당은 오늘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를 굳건히 다지면서 제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10대 과업을 제시하였다.

로력 원천이 적은 조건에서 방대한 로력이 요구되는 10대 과업들을 집행하자면 기술 혁신 운동을 촉진하고 로동 조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는 생산의 장성을 로력의 절대적 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달성하라는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즉 증대되는 로력 수요는 유휴 로력 원천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기술 혁신,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의 개선에 의하여 생기는 여유 로력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조절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로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당이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실로 크며 우리 당 로동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청년들 앞에는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청년들은 당이 힘을 집중하여 풀고저 하는 어렵고 힘들며 약한 부문을 추켜 세우는 투쟁에서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에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해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셨다.

지난 날 우리 청년들은 항상 당의 부름에 충실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 솔선 진출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조선 청년의 영웅적 기개를 세상에 떨쳤다.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 《철도 전기화 속도》를 창조하는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운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지난 날의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수상 동지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탄광, 광산, 림업, 수산, 농촌 경리 등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계속 솔선 진출해야 한다. 이 부문들은 자연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 기계화 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육체 로동의 비중이 높다. 이 부문들에 청년들이 솔선 진출함으로써만 어려운 로력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광범히 도입하여 그를 급속히 추켜 세울 수 있다.

선진 기업소들의 경험은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개선한다면 로력을 더 받지 않고도 생산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며 오히려 현존 로력 중에서 보다 중요한 부문에 청장년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평양 전기 공장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형타 용선로를 비롯한 일부 생산 공정을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추켜 세우면서 작업반을 알맞게 조직하는 등 일부 로력 조직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최근 1—2 개월 동안에 종업원 일 인당 생산액을 2 배 가까이 높였다. 이리하여 계획된 로력을 더 받지 않고 수십 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보다 중요한 부문에 돌리고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가 일하는 단위와 초소들에서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비생산 부문, 보조 부문 로력을 극력 축소하고 녀성들을 광범히 인입함으로써 건장한 청장년들을 보다 중요하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480분의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로력의 절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설비, 원료 등을 포함한 로동 과정에 인입되는 모든 요소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리용을 통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또한 어느 한 고리나 한 개 생산 공정에서의 로동 시간의 합리적 리용은 그와 련관된 생산 공정에서의 로동 시간의 리용을 개선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큰 영향을 준다.

로동 시간을 잘 리용하는 것은 아무런 보충적 설비와 투자도 없이 거대한 생산적 예비를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공업의 부문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480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로동 조직 사업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 시간의 합리적 리용, 여기에 바로 거대한 예비가 있다.

신의주 방직 기계 공장 청년 직장 청년들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공구, 지구를 비롯한 생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직장의 청년 기대공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으나 자체로 25 종의 1천500여 점에 달하는 공구, 지구를 만들어 씀으로써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배로 높였다.

생산 준비를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년간, 분기, 월 전투 계획 뿐만 아니라 일정 계획을 똑똑히 알고 제품, 생산 공정, 작업 방법들과 작업에 필요한 공구, 지구들에 이르기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체로 원료, 자재, 공구 등의 준비를 알아 보고 미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 설비를 애호 관리하고 그에 정통하며 제때에 점검 보수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출퇴근 질서를 지키며 인계 인수를 잘 해야 한다. 로동 규률을 지키지 않고 결근을 자주 하며 작업장을 리탈하여 기대를 세워 놓고 잡담을 하는 등으로 로동 시간을 랑비하는 일들이 자기 작업반과 집단 내에 없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새 기준량 창조 운동의 앞장에 서야 한다.

로동 기준량은 과학적인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의 기초로 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과학적인 로동 기준량이 있어야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로력 및 생산 규모를 옳게 계획할 수 있고 따라서 실정에 맞는 공정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기준량이 작성되여야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계속 높이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에 그들을 조직 동원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량은 낡은 것을 고집하고 새 것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와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통해서 또한 기계화, 자동화 등 선진 작업 방법의 광범한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들만이 기준량이 똑똑한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으며 기준량을 높일 수 있는 예비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 기준량 창조 운동의 앞장에는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응당 서야 한다.

청년들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대담하게 마스고 자기가 맡은 초소와 단위들에서 국가 계획 지표와 국가 유일 로동 기준량 수준에 기준량을 일치시키거나 접근시키도록 하면서 새로 창조된 기준량을 넘쳐 수행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준량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기술 혁명의 투사가 되며 과학과 기술 지식을 소유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오늘 새 기준량의 창조, 로력의 절약, 생산의 장성, 제품의 질 제고 등 그 어느 것이나 다 기술 혁신 운동과 기계화, 자동화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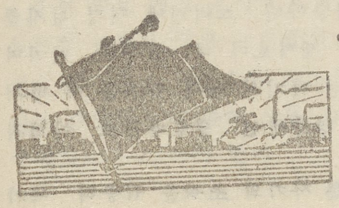
청년들은 우선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과 기능에 정통하며 자기 부문 앞에 나선 어려운 생산 기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풀어 나가며 설비를 개조하고 작업 방법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다기대 작업과 겸직 작업이 널리 조직되며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광범히 도입됨에 따라 기계화, 자동화된 설비들을 다루자면 기계 공학, 전기 공학 등 넓은 지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로동과 학습을 결합하며 시간을 아껴 가면서 선진 기술 기능을 배우는 데 힘써야 한다.

각급 사로청 단체들은 우리 당의 로동 정책으로 청년들을 무장시키고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단위와 초소들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로청 단체의 조직 정치 사업은 청년들의 생산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되여야 한다. 로동 시간 내에 회의, 강습, 써클 등을 일체 금지하며 청년들의 로동 규률 준수 정형, 로동 시간 리용 정형, 기술 학습 진행 정형 등을 수시로 사로청 단체 회의들에서 토의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 일'군들은 생산과 로동에서 모범이 되며 이신작칙의 솔선 수범으로써 청년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청년들과 사로청 단체들은 로동 행정 사업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사업으로 전환시켜 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긴장한 로력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은 혁명 전사의 생명이다

심 상진

조직이란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따라 서로 자원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말한다.

로동 계급이 낡은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을 완수하자면 반드시 일정한 조직이 필요하다. 지배 계급은 언제나 력사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 서려 하지 않으며 무기와 조직된 자본의 힘으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한다. 따라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게는 지배 계급의 반항을 분쇄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의 선두에 서서 자기들을 혁명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고 령도하며 이끌고 나아가는 선봉적인 부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전위 부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하게 된다.

로동 계급은 당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상 목적과 리해 관계의 공통성에 따라 직업 동맹, 청년 동맹, 녀성 동맹 등 혁명적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는바 바로 이것들이 로동 계급의 이러저러한 계급적 조직을 이룬다. 당은 이 모든 계급적 조직 가운데서 최고 형태의 조직이다.

이러한 혁명적 조직들이 없이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원쑤와의 치렬한 계급 투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혁명 투쟁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자기들의 조직 이외에 그 어떠한 다른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찌기 레닌은 로씨야 혁명의 전야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로동 계급에게는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조직 이외에 다른 무기는 없다》《우리에게 혁명가의 조직을 달라—그러면 우리는 로씨야를 뒤집어 엎어 놓을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혁명적 조직을 가지지 못 하면 아무리 용감하고 총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제멋 대로 행동하는 무맥한 존재로 될 것이며 무기 없는 군대와 같이 온갖 계급 투쟁은 실패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오직 혁명 조직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튼튼히 뭉치여 당의 옳바른 지도 하에 적의 요새를 향하여 돌진해 나갈 때 원쑤들을 산산이 짓부시고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독재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자기의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혁명적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력사적 경험이 잘 말하여 준다.

1920 년대에 우리 나라의 로동 운동을 비롯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은 각지에 조직된 맑스-레닌주의 소조들과 대중 단체들에 의하여 급속히 장성하였다. 또한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 발전의 추동력으로 되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종파 분자들의 분렬 책동으로 말미암아 창건된지 불과 3 년만에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다. 결과 공산주의 대렬은 조직화되지 못 하였으며 대중 투쟁에

패한 조직적이며 목적 지향성 있는 지도가 보장되지 못 하였다. 이리하여 이러저러한 투쟁은 많은 제한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지 못 하였다.

1930 년대에 이르러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비로소 정확한 전략, 전술이 작성되고 15 개 여 성상에 걸치는 항일 무장 투쟁이 조직 전개되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핵심이 이루어졌으며 공산당 조직들과 조국 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대중적 혁명 조직들이 결성되고 그 주위에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광범히 집결됨으로써 조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 광복의 력사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방 후에도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근로자들의 모든 대중 조직들을 제때에 창건하고 강화 발전시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혁명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로동 계급에게는 비록 정권 전취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취한 정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앞에 제기된 모든(정치, 경제, 문화적 및 군사적)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당과 자기의 대중적 혁명 조직들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즉 로동 계급은 자기 손에 정권을 잡은 후 사회주의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어렵고 복잡한 투쟁 과업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를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는 향도력과 인전대로 구성되여 있는바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향도력이란 당을 말하며 인전대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근로자들의 모든 대중적 조직체들을 말한다.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이 보장되고 혁명 과업 수행에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인 근로 단체들의 기능이 높아짐으로써만 로동 계급의 사명과 공산주의자들의 리상은 현실로 될 수 있다.

이처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투사들, 즉 혁명 전사들에게 있어서 조직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기에 혁명 전사들은 자기 조직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조직의 요구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며 필요한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혁명 전사들은 자기의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충실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육성 단련된다. 혁명 전사들은 오직 자기 조직에 튼튼히 뭉쳐서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며 조직의 혁명 규률에 자각적으로 복종하며 조직의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강철의 전사로 단련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 전사로 교양 육성될 수 있다.

우리의 혁명 선렬들인 항일 빨찌산들은 혁명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조직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함으로써 훌륭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서의 생동한 모범을 수 많이 보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의 가장 충직한 전우이며 전사였던 열렬한 공산주의자 권 영벽 동지가 남긴 말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상기해 보기로 하자. 《혁명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소. 만일 우리가 적들에게 체포되면 적들은 모진 고문과 갖은 흉계를 다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비밀을 알아 내려고 할 것이요. 우리는 혁명의 투지로, 사장 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오. 적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소. 만일 우리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업을 검토해야 하오. 내가 혁명에 얼마나 충실했던가를, 바로 이것이 혁명가인 우리의 임무요》

또한 항일 투사 김 정숙 동지는 놈들에게 체포되여 모진 고문을 받고 사경에 처하였을 때 자기가 갇혀 있는 집 주인을 통하여 조직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 주십시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혁명 선렬들의 조직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충실성의 고매한 혁명 정신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킨다.

우리 젊은 혁명 전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처럼 열렬한 혁명 선배들의 조직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을 거울삼아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하며 그를 자기의 실생활에 구현하도록 힘써야 한다.

× ×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며 혁명 선배들의 위업을 이어 나가는 젊은 공산주의 혁명 전사들이다. 그런것 만큼 혁명의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는 혁명 전사답게 자기의 혁명 조직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며 그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집단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조직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조직 밖에서 숨 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조직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과 사로청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이다.

당에 의거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당의 뜻대로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 당의 로선,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충실히 집행하는 것, 당 정책 관철을 위한 각급 당 조직들의 결정, 지시들을 성실히 집행하는 것,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당 조직의 지도와 선배들인 로동당원들의 방조를 의식적으로 허심하게 잘 받드는 것 등을 의미한다.

오직 당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생활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일편단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당의 의도와 어긋나는 그 어떠한 생각도 행동도 그 대로 두지 않고 물리칠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모퉁이에서든지 당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 훌륭한 당의 혁명 전사로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로청 조직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표시로 된다. 그것은 사로청 조직의 사업은 다름 아닌 당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 청년들이 사로청 조직에서 사업하며 생활하는 과정은 곧 당원 후비로서 사업하며 생활하는 과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로청원들은 당에 충실하려면 응당 자기가 소속된 사로청 조직의 해당 단위에서 조직 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사로청원이 자기 동맹의 조직 생활에 충실한다는 것은 조직 생활 규범에 엄격히 립각하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으로서의 규약상 의무를 잘 지키며 모든 사업과 생활을 사로청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온갖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경향을 배격하고 조직 규률과 비밀을 엄수하며 자기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 조직 앞에 수시로 보고하고 자기의 조직 생활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며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로청원들은 또한 동맹 회의에 빠짐 없이 참가하여 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하며 새롭고 중요한 문제는 자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맹 조직에 문의하고 집단의 의사와 권고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과 집단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주견과 행동을 조직 우에 올려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영웅주의는 결국 자기 개인의 소 〈총명〉이 조직과 집단의 의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조직 밖에 선 개인의 존재가 서푼어치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생활은 오직 조직에 튼튼히 발붙이고 조직의 의사와 행동에 자기 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보태며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조직을 귀중히 여길 줄 알며 조직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결정과 위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매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은 그가 다지는 맹세나 결의만을 가지고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실지로 조직의 결정과 위임을 얼마나 실'속 있게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말하기는 쉽고 맹세와 결의를 다지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충실성도 역시 조직의 결정과 위임을 실행하는 태도에서 실지로 표현되여야 한다.

조직의 결정은 집단의 조직적 의사이며 누구도 그것을 위반할 권리가 없다. 문제는 조직의 결정을 무조건 접수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달라 붙는 데 있다.

조직의 결정을 가지고 흥정하거나 소홀히 여기면서 그것을 실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집체적 협의를 거쳐 일단 토의 결정된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김 없이 수행하고야 마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하며 이악한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또한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과 결정된 문제를 성과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매개인의 능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성격과 취미 등에 알맞게 일정한 분공을 주게 된다. 개개의 성원들이 자기에게 차례진 분공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전체로서의 혁명 조직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분공은 각자에게 차례진 영예로운 혁명 과업이며 그것은 매개 사람들에 대한 조직의 신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공을 위임 받은 매개 성원들은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든지 기꺼이 접수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분공 실행을 통하여 조직의 신임에 보답하며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며, 혁명 전사로서의 조직 생활—정치 생활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는 문제이다.

조직의 결정과 위임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이러 저러한 애로와 난관이 동반될 수 있다.

혁명 투쟁이란 원래 간고한 것이며 식은 죽 먹기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풍파를 헤치고 시련을 겪으면서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만 혁명 투쟁은 승리한다. 그러므로 혁명 전사들은 언제나 혁명을 위하여 사고하고 움직여야 하며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훌륭히 실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머리를 써야 하며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갈 방도에 대하여 궁리를 하여야 한다.

머리를 쓰고 의론하며 궁리를 하느라면 앞이 트이고 나아갈 방도가 생겨나는 법이다. 일시적으로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 비겁하게 우는 소리를 하고 주저 앉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몸을 아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과 집단의 힘을 믿고 거기에 의거하여 난관을 맞받아 용감하게 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혁명가적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조직의 결정과 위임 실행에 한결 같이 달라 붙는다면 못 해 낼 일이란 없으며 점령 못 할 요새란 있을 수 없다.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조직을 귀중히 여기며 조직에 무한히 충실한 젊은 혁명 전사로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함으로써 조국의 통일 위업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나의 전우 한 공청원을 생각하며



리 정인

공청 조직은 나에게 있어 혁명의 학교였으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성장의 요람이였다.

어제'날의 나의 공청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나에게는 당과 혁명과 혁명 조직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공청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청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우리는 정말 그 때에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공청 조직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가렬한 전투장과 적구에서 당과 공청 조직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고 분투했으며 혁명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하여 원수들의 감옥과 교수대에서 웃으며 용감하게 최후를 마쳤던 것인가!

공청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선을 넘나들며 공작하던 동지들, 《적들의 심장에 포대를 쌓자!》고 웨치며 백색 테로가 횡행하던 적 통치 구역에서 활동하던 동지들…나는 그들을 회상할 때마다 그렇듯 조직 생활에 충직하던 리 경희 동지를 잊을 수 없다.

그는 공청원의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말았다.

공청 조직에 대한 충실성은 그의 생활과 학습, 전투 행동에서 일상적으로 표현되군 하였다.

유격대 생활의 초 시기에 경희 동무는 토룡(구식 보총)한 자루를 받았다. 그는 혁명의 무기를 받은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통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무한히 애썼다. 그는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중에도 혼자 일어나 총을 분해 결합해 보기도 하였고 사격 동작을 익혀 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조직이 그에게 하루 속히 무기를 능숙히 다룰 수 있도록 분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단시일 내에 총 쏘는 법을 익혔으며 유격대 내에서도 총 잘 쏘는 데 꼽히는 축으로 되였다.

그는 전투에서도 항상 공청원답게 용감하였다. 1933년 가을 왕우구 전투 때였다. 이 날 경희 동무는 다른 한 녀대원과 함께 산 우에서 보초를 서게 되였다. 토벌대 놈들이 근거지를 향하여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산'봉우리 우에 두 명의 녀성 대원들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업신 여기고 막 기여 올랐다. 그러나 경희 동무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자기 동무에게 양쪽에 총알을 재워 달라 하고는 기여 오르는 놈들을 면바로 조준하여 쏘아 넘기군 하였다. 한 놈이 거꾸러지면 또 다른 총을 받아 들고 쏘아 넘겼다. 적들은 뜻밖에도 주검을 많이 내게 되였다. 경희 동무는 놈들이 당황해 하는 틈을 타서 폭탄을 준비했다가 우굴거리는 적들의 무리 속에 던졌으며 바위'돌도 굴렸다. 적들도 만만치는 않았다. 놈들은 무리 주검을 내면서도 계속 게바라 올랐다. 그럴수록 리 경희 동무는 더욱 침착해지면서 생각하였다.

(나는 공청원이다. 나는 지금 조직의 위임

을 받고 나의 혁명 초소에 서 있다. 나의 뒤에는 나의 목숨보다 귀중한 혁명 근거지가 있지 않는가, 내가 만약 공청의 신임을 저바리고 저놈들을 전부 소멸하지 못 한다면 근거지와 수 많은 혁명 군중들의 운명이 위험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서서는 안 된다.)

그는 원쑤들을 쏘고 또 쏘았다. 이리하여 그는 이날 적 한 개 중대를 거의 소멸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또한 조직에 대한 그의 충실성은 언제나 혁명 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적 태도에서 표현되군 하였다.

내가 그와 함께 사업하게 된 어느날 밤, 자위대실 앞에 매놓은 말이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 동무들은 말을 찾느라고 이 곳 저 곳 뛰여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말은 다시 제 자리에 돌아 와 코투레를 불고 서 있는 것이였다. 고삐가 풀어진 것으로 보아 누가 밤'중에 끌어 갔던 것이 분명하였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한 쪽 다리를 상하여 자위대실에서 앓고 있던 경희 동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였다. 그제서야 우리들은 그 까닭을 짐작하게 되였다. 마을 어귀에 있는 보초소에 가보니 과연 거기에 경희 동무가 서 있었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경희 동무는 자기가 다리를 상하여 며칠 공작을 못 하게 된 것을 분하게 생각하면서 책임자에게 망원초 근무라도 세워 줄 것을 거듭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망원 보초를 나가게 된 그에게 간부 동무들이 말을 타고 나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을 타고 나가다 도중에서 말을 돌려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보초소로 갔던 것이다.

몸에 그렇게 부상을 입고도 공청원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진하여 혁명 임무를 맡아 나서는 그의 정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높은 것인가! 일상 생활에서도 경희 동무는 공청 조직에 찾아 가서 어렵고 간고한 일은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항상 말해 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경희 동무는 후'날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그 때 공청원인 나로서는 그 밖에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참으로 훌륭한 공청원이였다.

보초 근무를 교대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 오는 길에서도 길'가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아니 네가 어째 여기 혼자 나와 있어? 원쑤 놈들이 개처럼 싸다니며 아무 데나 총질을 하며 달려 드는데…》하고는 한 아이를 안고 그의 부모들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군 하였다. 또한 짐을 지고 가는 로인이나 무거운 임을 인 애기 어머니들을 만날 때면 아무리 피곤할 때도 의례히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었다.

《나도 그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하면서 기어이 그들을 도와 드렸다.

굶주림과 죽음이 우리들을 위협하던 1935년의 유격대 근거지에서도 공청원 리 경희 동무는 인민들에게 용기와 신심을 안겨 주기 위해 자기의 모든 고통을 참아 가며 정력적으로 싸웠다.

그는 매일 같이 눈 속을 뒤져 풀뿌리를 캐여다가는 굶어 일어 나지 못 하는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어코 살아서 원쑤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힘을 북돋아 주었고 혁명을 승리한 후 해방된 조국에서 누릴 행복한 생활을 마치 자기 눈으로 보는듯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근거지 인민들은 《굶고 맥 없이 누웠다가도 경희 동무의 쾌활한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된다》고들 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기 위하여 해설 공작을 진행하는 것을 공청원의 응당한 임무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그는 당과 혁명 조직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지어는 혁명의 한 길 우에서 자기의 청춘도 아낌 없이 바쳤다.

그것은 1937년 6월 우리 부대가 다가시 목재소를 습격하던 때의 일이다.

이 전투에서 아군 부대는 수 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그런데 이 때 척후로 최선두에 서서 적들 속에 뛰여 들어 가던 리 경희 동지는 적탄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경희 동무!》

《리 동무!》

전우들은 모두 애통한 심정에 싸여 그를 불렀다. 이 때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우지 못 해 원통해요…그러나 조금도 슬프지 않아요. 무산 지구 전투에서 그리운 조국 땅을 밟아 본 것이 정말 행복해요.》

그는 이 말을 전우들에게 남기고 눈을 감았다. 전우들은 비분의 눈물을 삼키면서 그를 조국 땅이 잘 보이는 남향받이에 안장하였다.

비록 그의 생애는 짧았으나 공청원으로서의 그의 청춘은 얼마나 값 높고 빛나는 것이였던가!

그는 한 시도 공청원의 영예를 잊은 적이 없었으며 항상 그를 심장 속에 깊이 새기고 싸웠다. 실로 그의 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당과 혁명, 조직에 대한 충실성이였다. 자기의 혁명 조직에 대한 이와 같은 충실성이 있음으로 하여 그는 언제나 학습과 생활, 전투에서 남다른 모범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혁명 조직은 혁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나의 념원을 기어코 성취시켜 주리라고 믿어요》

나는 언젠가 그가 하던 이 말을 잊을 수 없다. 그렇다. 혁명가는 오직 조직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참뜻을 느끼며 자신의 수양도 단련도, 리상의 실현에 대하여서도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우리의 전체 사로청원들에게 더욱 조직 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오직 생활에 충실함으로써만 훌륭하고 참된 혁명 전사의 높이에로 자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시기 김 일성 동지의 전사로, 당일'군으로 사업하면서 당과 혁명에 충직한 우리 시대의 수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먼 후'날에 자기의 사로청 시절을 돌이켜 볼 것이 아닌가! 과거를 돌이켜 보며 자기의 혁명 조직에 부끄럼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떳떳한 일은 없다.

조직 생활에 충실하라!

이것이야 말로 공청 시절을 돌이켜 보며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청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다.

생활의 거울

기특한 젊은이들

지난 어느날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사로청원들인 김 정숙, 리 정필, 정 두삼 동무들은 마을의 유치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뜨락에서는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설치된 유치원에서는 그네나 미끄럼'대 같은 것이 그리 넉넉하지 못 했다. 사람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이 또한 적지 않았다.

농사'일이 바쁜 관계로 협동 농장에서는 미처 여기에 역량을 돌리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를 보는 그들 사로청원들의 마음은 몹시 언짢았다. 장차 조국의 기둥'감으로 자라 날 저 귀여운 꽃봉오리들, 어찌 저들이 한시인들 즐거운 놀이터가 없이 지낼 수 있겠는가.

이 날 밤부터 유치원 마당에는 때 아닌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부산하게 들렸다. 하루 작업의 피곤을 무릅쓰고 그들이 교양실의 안팎을 깨끗하게 꾸미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교양실 벽에 회칠도 하였고 천정도 말끔하게 발랐다. 저마다 자기 집에 있는 예비를 동원하여 장판까지 산뜻하게 해 놓았다.

작업의 짬 시간에 철선을 수집하여 못을 만들기도 하였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 올 때에는 나무를 해 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놀이터도 만들었고 그네와 미끄럼'대도 만들어 놓았다.

며칠 후 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유치원은 몰라 보게 번듯하게 꾸며졌다. 거기에서 춤추며 뛰노는 어린것들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

《과연 우리 농장 젊은이들은 보배들이야…》

홍원군 룡삼 협동 농장

통신원 송 동립

전투 실화

조국의 한치 땅도 내여 줄수 없다

김 호



1950년 8월,

조선 전선에서 참패를 거듭한 미제 침략자들은 여지 없이 추락된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려고 태평양 방면의 방대한 륙해공군 병력과 지중해 함대의 일부를 동원하여 인천에 상륙하려고 시도하였다. 오만한 적들은 인천에 상륙하여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멀리 남으로 진격해 나간 우리 인민군의 주력 부대들을 일거에 포위 소멸하려고 망상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리 대훈 해안포 중대에는 월미도에 진출하여 인천을 방어할 영예로운 전투 임무가 하달되였다. 이리하여 서해의 작은 섬인 월미도는 벅작 끓기 시작하였다.

우리 전투원들은 암석이 깔린 월미산에 포진지를 파기도 하였고 교통호며 허위 진지를 굴설하기도 하였다. 포진지와 포진지들에는 통신선이 늘여졌고 위력 있는 포들이 설치되였다.

당원 협의회가 있은 때 뒤'이어 제 1 포 진지 안에서는 중대 민청 회의가 열렸다. 중대 민청 위원장인 김 재순 동무가 보고하였다.

《지금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강산에 야수적 폭격과 함포 사격을 련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도 놈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은 양키들의 피 묻은 발톱이 신성한 조국 강토를 더럽히는 것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합니다. 원쑤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안겨 줍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흥분으로 떨렸다. 민청원들은 피로써 조국 강토를 수호할 결의들을 다졌다.

…이윽고 삼불도와 월미도 중간에 두 척의 미국 구축함과 순양함 한 척이 나타났다. 놈들은 월미산의 골짜기들과 해안에 포 사격을 담아 부었다. 위력 정찰을 나온 놈들임에 틀림 없었다.

9월 13일 이른 새벽, 리 대훈 중대장은 감시소에 올랐다. 포대경으로 해상을 살펴 보던 그는 적들의 행동이 종전보다 더욱 심해지리라는 것을 판단하였다. 그는 정찰수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다.

《방위 목표 № 1 방향을 각별히 눈여겨 감시하오. 적들의 새로운 동태가 보이면 인차 보고하오.》

과연 그의 예측은 맞았다. 그가 감시소에서 나와 지휘소에 채 들어 서기도 전에 요란한 적 기들의 발동 소리가 울려여 왔다. 하늘을 쳐다 보니 수백대의 적기가 까마귀 떼처럼 새까맣게 밀려 오고 있었다. 놈들은 월미도와 인천 시가에 닥치는 대로 폭탄을 담아 부었다.

그에 뒤'이어 더져도 쪽으로부터는 적의 순양함, 구축함, 경비정들이 수 없이 밀려 들고 있었다.

원쑤들은 이 조그마한 섬을 향하여 하늘과 바다로부터 불질을 하였다. 삽시간에 월미도는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게 되였다.

리 대훈 중대장은 묵묵히 다가 오는 적함들을 노려 보면서 놈들을 격멸할 면밀한 구상을 익히고 있었다.

(놈들은 아직 우리의 포진지 위치를 모르고 있다. 또한 놈들은 자기들의 수량 상 우세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약점들을 리용하여 적들이 가까이까지 기여든 결정적 순간에 불벼락을 들씌워 주자.)

그의 결심은 지체 없이 중대 내 군인들에게 침투되였다.

8 키로 메터…5 키로 메터…오만한 적들은 죽음의 함정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기여 들었다.

이윽고 전투 준비를 알리는 중대장의 높고 쩌렁쩌렁한 구령이 내렸다. 미더운 포신들은 일제히 적함을 겨냥하고 머리를 추켜 들었다.

1 포 조준수 리 호섭 동무는 조준경 십자선우에 적 구축함의 앞부문을 올려 놓았다. 적의 함대가 4 키로 지점에 접근했을 때 중대장의 사격 구령이 내렸다. 해안포들은 일제히 복수의 불을 뿜었다.

포탄은 적함들의 앞뒤에서 물'기둥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작렬하였다.

《명중!》

감시병의 웨침 소리가 들린다. 한 척의 구축함이 먼저 포탄을 맞고 꿈틀거린다. 올챙이처럼 구축함 주위에서 오글거리던 적 상륙정들이 갈팡질팡거린다.

그러나 적들도 마구 함포탄을 담아 부으며 자꾸만 다가 들고 있었다. 이제는 전화선들마저 절단되였다.

나어린 전화수는 우박치는 포탄을 뚫고 전호에서 뛰쳐 나가다가 중대장에게 붙잡혔다.

《지금은 못 가오.》

그러나 전화수는 전호의 흉장을 힘껏 잡아쥐고 내리지 않았다.

《중대장 동무, 저는 포를 직접 쏘지 못하는 것만 해도 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끊어진 전화선을 보고도 그냥 있겠습니까?》

몇 발'자국 뛰쳐 나가던 그는 주변에서 터지는 포탄 파편에 맞아 쓰러지였다. 그러나 그 나어린 전화수는 결코 전호에로 되돌아 서지 않았다. 그는 피흐르는 몸으로 배밀이를 하면서 동강난 전화선을 끝까지 하나하나 이어 나갔다.

월미도—바로 이 조그마한 섬에서 조국의 난국을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와 자각이 매개 전사들의 심장을 불태웠다. 그들은 적함을 향하여 쏘고 또 쏘았다.

또 하나의 명중탄이 적 구축함 사령탑에서 터졌다. 마스트가 날아 나고 검붉은 화광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바빠맞은 적들의 상륙정들은 연막탄을 치면서 해안 가까이로 기여 들고 있었다. 그러나 아군 전투원들은 침착하게 놈들의 상륙정 우에 복수탄을 담아 붓군 하였다.

원쑤들은 수백대의 비행기와 수 십척의 군함들로 다섯 시간 이상이나 검질기게 공격했지만 끝내 이 조그마한 섬의 용사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이 날 밤 적들은 밤새껏 월미도를 폭격하였다. 그야말로 월미도를 송두리 채 뽑아 버릴듯한 기세였었다. 아군 전투원들은 묵묵히 마사진 전호와 교통호들을 수리하였다.

날이 밝자 원쑤들은 다시 밀려 들기 시작하였다. 두 척의 적 구축함이 보기 좋게 격침되였을 때였다. 포장 방 익서 동무는 그만 폭풍에 날려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했으나 마음 대로 되지 않았다. (조준경 십자선에 넣은 적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분노에 찬 음성으로 구령을 쳤다.

《포 발사! 발사!》

그러나 포는 잠잠하였다. 포수들도 조준수

도 이미 부상을 입고 쓰러졌던 것이다.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하였다.

(적함을 그냥 두고 죽을 권리는 나에게 없다. 지금 월미도는 조국을 지켜 선 관문이 아닌가!)

그는 몸을 굴리면서 포 진지에로 접근하였다. 사랑하는 포의 조준경은 쓸 수 없이 부서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터지는듯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역시 부상 당한 리 용식 전사를 발견하였다.

《용식 동무! 내가 조준기 시전환을 돌릴터이니 동무는 포신을 통해 적의 상륙정을 겨누오.》

이리하여 중상 입은 두 부상병은 자꾸 흐려가는 의식을 가다듬어 가면서 적함에 명중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시각에 리 대훈 중대장도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 계산수가 그에게 달려 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자기의 상처를 돌 볼 짬이 없었다.

《계산수 동무, 정황이 매우 긴급하오. 내 걱정은 말구 빨리 사격 수정량을 계산하시오.》

그는 피 흐르는 머리를 한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적들은 썰물이 지기 전에 월미도의 교두보를 차지하려고 발악적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월미도의 용사들은 이 날도 굴함 없이 적 함선 4 척을 격침하고 놈들의 상륙 기도를 보기 좋게 파탄시켰다.

물론 아군의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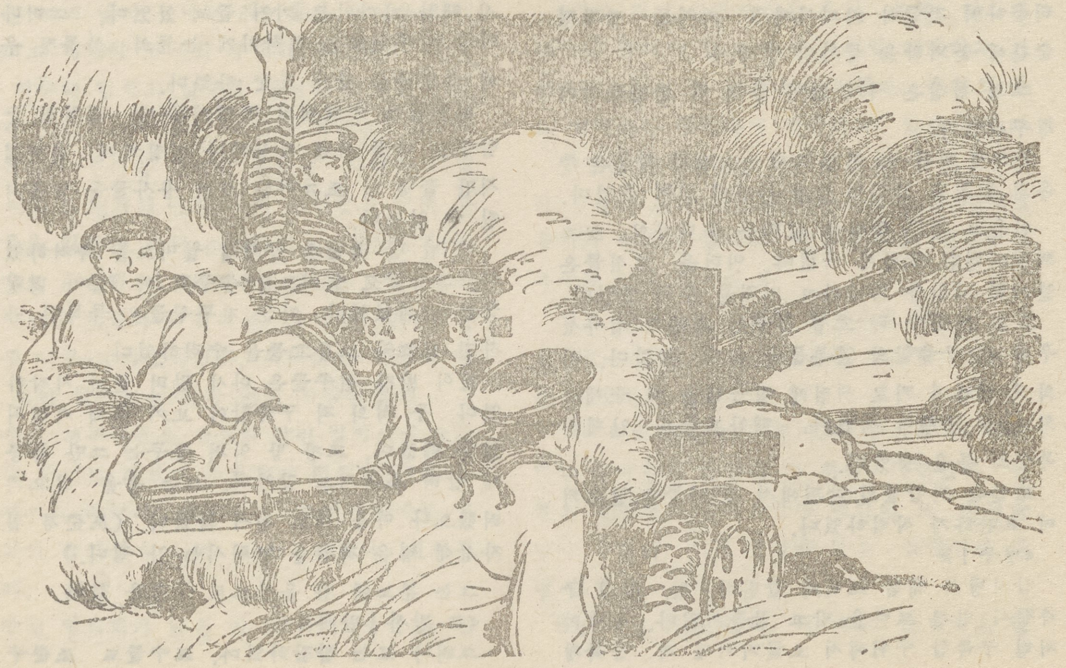
교통호와 전호들도 무너지였다. 일부 포들은 파괴되고 어떤 포들은 불에 녹아 포신이 휘여 들었다. 조국의 촌토를 붉은 선혈로 물들이며 수 많은 청춘들도 꽃으로 흩어졌다.

리 대훈 중대장은 전사들 앞에서 말했다.

《동무들, 마음을 굳게 먹소. 김 일성 장군 항일 빨찌산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15 여 성상이나 강대한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소.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한 항일 빨찌산들처럼 우리도 미제 야수들과 싸웁시다.》

전사들은 적들의 공격 기도가 더욱 악랄해지는 준엄한 시각에 당, 민청 회의를 열고 자기들의 불같은 결의를 담아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썼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장군이시여! 우리는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조국의 땅





—월미도를 끝까지 사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비록 며칠 동안의 가렬한 격전으로 얼굴은 땀, 먼지로 얼룩졌으나 맹세문에 서명하는 그들의 눈'동자마다에는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칠 각오가 번쩍이고 있었다.

…드디여 9월 15일 벌써 월미도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성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포도 모조리 마사지고 오직 한 문 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이 적들의 상륙정을 향하여 마지막 한 발의 포탄마저 다 쏘았을 때였다. 적들의 포화력이 점점 포 진지에로 집중되였다. 전사들은 당황함이 없이 저격 무기들을 손에 들고 화력 진지 앞에 산개하였다. 벌써 적들의 전차는 월미산 서쪽 기슭에까지 와서 으르릉거리고 있었다.

적의 선두 전차가 아군의 매복 지점에 다가왔을 때 권 선 동무가 맹호 같이 달려 나가 반전차 수류탄을 던졌다. 전차는 온 몸을 들썩하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뒤따르던 적 보병들도 주춤거렸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우리 전투원들은 일제히 적들의 보병에게 명중탄을 담아 부었다. 놈들은 이 번에도 퇴각하였다.

그러나 수'적 우세를 믿는 적들은 또다시 공격해 왔다. 이 번에는 온 섬을 새까맣게 포위하면서 돌격해 오기 시작하였다. 도로로는 적 전차가 무수히 밀려 왔다. 리 대훈 중대장이 선두 전차에 기여 가 그 놈을 파괴해 버렸다.

그들은 불사조와도 같이 싸웠다. 그러나 이제는 탄알마저 떨어졌다. 미제—승냥이들은 온 섬을 덮으며 밀물처럼 밀려 들고 있었다. 그렇다고 인민군 전사들이 물러 설 곳은 한 발'자국도 없었다. 월미도의 뒤에는 사랑하는 조국의 온 강토가 있지 않는가. 한 시간이라도 이 섬을 더 오래 견지하면 그 만큼 아군 주력부대들의 후퇴에 더 도움이 될 것이였다.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붉은 심장이 고동치는 한 사랑하는 조국 땅 월미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 설 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빛나는 최후를 각오하였다.

조국이여, 영원히 번영하라!

미제 원쑤들에게 멸망이 있으라!

용사들은 총창을 고누어 들고 최후의 육박전에 나섰다.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온 강산에 높이 울려 퍼졌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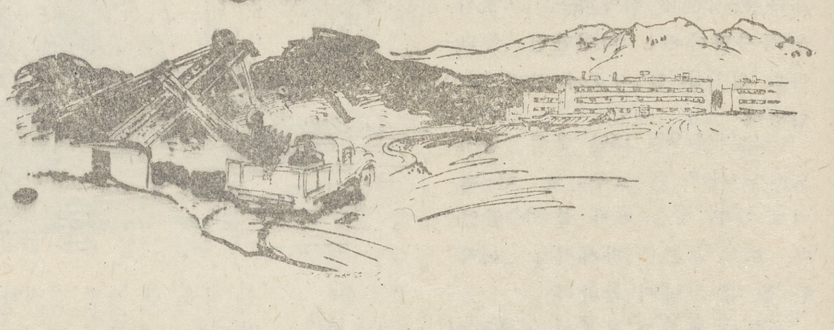
이 날 상급 참모부에서는 월미도에서 다음과 같은 무전을 받았다.

《전문 받아라, 중대는 적의 구축함 경비정, 상륙정 19 척을 격침 격파함, 지금 중대 전원이 반돌격하여 나간다. 중대장이 앞장 서서 대오를 지휘한다.…》

월미도의 영웅들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조국의 한 치 땅도 원쑤들에게 내여 주지 않기 위하여 최후까지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이 발휘한 이 대중적 영웅주의의 빛나는 모범은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불타 오를 것이다.



홀동 광산의 어제와 오늘



홀동 광산 사로청 위원회 위원장 김 천일

미국 승냥이 무리의 출현

여기에 한 권의 책이 있다. 우리 홀동 광산이 걸어 온 수난의 력사를 기록한 《연혁사》이다.

그의 첫 장을 번지면 다음과 같은 글이 눈에 띄인다.

《…여기 언진산 일대에서 동광체 광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600 여 년 전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수공업적 방법으로 동 (銅)을 캐여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썼다.

근 한 세기 전부터 우리 조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1882년 무능한 리조 봉건 통치배들을 협박하여 불평등적인 <한미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 홀동 땅에도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893년에 미국의 콜브람 포스트이크, 영국의 크레안 신지게트, 일본의 미쯔비시 등 재벌들이 이 광산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였다. 그 후 미제는 차츰 영, 일 자본을 구축하고 이 광산의 경영권을 독점하였다.…》

바로 이렇게 미제 승냥이들은 지난 19 세기 말부터 홀동 땅에서 이 일대에 무진장하게 매장된 금 은 보화들을 략탈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언진산 지맥의 높은 언덕 우에 지붕이 뾰죽한 양옥들을 지어 놓고 거기에 둥지를 틀었다. 그 때로부터 여기에는 양관촌 (洋舘村) 이라는 더러운 이름이 붙었다.

미제 승냥이 무리들을 따라 서울에서 온갖 친미 분자들과 인간 쓰레기들이 내려 왔다. 그 결과로 광산 지구에는 경성동(京城洞)이라는 또 하나의 괴상한 마을이 생겼다.

이 양관촌이나 경성동에 비할 때 로동자들이 사는 주택 마을은 참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야말로 양관촌 같은 것을 《천당》이라면 어지럽기 짝이 없는 로동자들의 주택 마을은 말 그 대로 《지옥》이였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미제의 온갖 략탈적 만행은 일제에 의하여 비호되였다. 일제는 미국 자본가들의 략탈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산 지구에 헌병 분견소, 경찰 주재소를 설치하였고 수 많은 순시들을 두었다.

그 당시 광부들의 생활은 참말로 눈물겨운 것이였다. 광부들은 아무런 로동 보호 시설도 없는 비좁은 굴안에서 기여 다니며 일했다. 무거운 광석을 등에 지고 수십 길 수직갱으로 게바라 오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굴에서 동발도 없이 일하다가 리 승준이란 젊은 로동자가 락반에 묻혀 죽었고 강 필수라는 광부 일가는 아버지와 형 등 4 명의 식구가 갱 내에 파묻혀 세상을 떠났다.

놈들은 조선인 로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 하게 여겼다. 어느날 6 번 마구리에서 일하던 한 광부가 락반 사고로 버력에 묻힌 일이 있었다. 그는 힘을 다해 겨우 몸을 빼긴 했으나 뼈가 부서진 한쪽 팔만은 도저히 뽑을 수 없었다. 동무들이 그를 구하려고 달려 가려 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내려 왔던 미국 놈 스미스는 자기 동무를 구하기 위해 달려 가는 로동자들의 로력이 허비되는 것이 아까와 도끼를 들어 그 로동자의 파 묻힌 팔을 뭉텅 잘라 버렸다.

인간의 피를 즐기는 것은 예나 제나 변함 없는 미국 승냥이들의 본성이다.

선광장 옆에서 잠깐 조는 로동자를 본 미국인 엥겔레스는 그의 머리에 뜨거운 화독을 들씌워 놓았고 세 살 잡이 어린 것을 오토바이로 깔아 죽이고도 《통행 방해죄》로 몰아 그의 부모에게서 벌금까지 받아 낸 놈들, 양관촌쪽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 오다가 리 봉운이란 한 로동자의 처가 길을 건느는 것을 보고 속력을 놓아 깔아 뭉갠 놈들, 석달리의 깨끗한 개울에 《조선 사람은 여기에서 몸을 씻지 못 한다》고 패말을 써 붙인 놈들이였다. 실로 놈들의 비행을 일일이 렬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직 《쉰 패랭이 굴》에 깃든 이야기 하나만을 더 하기로 하자!

1928년 어느날이였다. 마을에는 갑자기 녀인들의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다. 수십 명의 광부들이 들어 간 굴이 무너졌던 것이다. 무너진 굴 틈새기로는 사람 살리라는 비명이 새여 나왔다. 사람들은 욱 그리고 밀려 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시 광산을 경영하던 미국 놈 콜브란이란 자가 일본 헌병 경찰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로 막고 있지 않는가! 놈들은 무너진 굴을 파내는 막대한 로력이 아까왔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생명보다 오직 돈만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 승냥이들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이 때부터 이 굴에는 모자를 갱 밖에 벗어 놓고 들어 간 사람만도 50 여 명이였다는 의미에서 《쉰 패랭이 굴》이라는 구슬픈 이름이 붙었다.

간악한 착취 체계

우리 광산의 박 만수 아바이는 스물 이전에 부모를 잃고 광산에 왔었다. 그는 하루에 20 전의 로임을 받고 일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캔 광석량은 한 톤 이상씩 되였다. 당시 광석 1 톤의 시세는 1원 40전이였다. 때문에 그 때 미국 자본가 놈은 로동자들의 로임 20전과 기계 설비에 드는 돈 20 전을 제한 1원씩을 광석 톤당에서 착취해 내군 하였다.

놈들은 로동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또는 저금, 벌금 등의 방법으로도 로동자들을 착취하였다.

놈들은 로동자들에게 주는 로임도 돈으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 전표로 주었다. 그런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로동자들은 돈이 없으면 그 전표를 한 장에 15전 씩 받고 회사측 감독이나 계장 놈들께 도로 팔아야 했다. 그러니 이런 로동자들의 실제 로임은 하루 15 전인 셈이였다. 그리고 전표를 가지고 쌀, 소금, 천 등을 사려면 놈들의 용달 공급소 (用達供給所)에 가서 4할～5할씩 비싼 값으로 사야 했다. 게다가 광산 지구에 들어찬 각종 잡화상, 술집, 병원 같은 것들까지 로동자들을 뜯어 먹었다. 그러니 로동자들이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겠는가!

하기에 그 때 우리 광산에서 일하던 김 경환이란 로동자는 일곱 식구가 모조리 굶어 죽었고 박 만수 아바이 역시 자기의 어린 딸을 눈물을 머금고 남의 집 민며느리로 보냈다는 것이다.

미제 승냥이들은 이렇게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면서 우리 홀동 광산에서 30여 년간 60 여 톤의 순금을 략탈해 갔다.

그 후 광산은 일제 재벌인 《아리까》, 《오가끼》 놈들께 양도되였다. 놈들은 광산에 전기를 끌어 들이고 100 마력 압축기를 설치하고는 로동자들을 더욱 혹독하게 착취하였다.

일본 자본가 놈들 시절에 와서는 종전보다 녀성 로동자들과 소년 로동자들이 더 많이 채용되였다. 그것은 남성 로력이나 성인 로동자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로임을 주고도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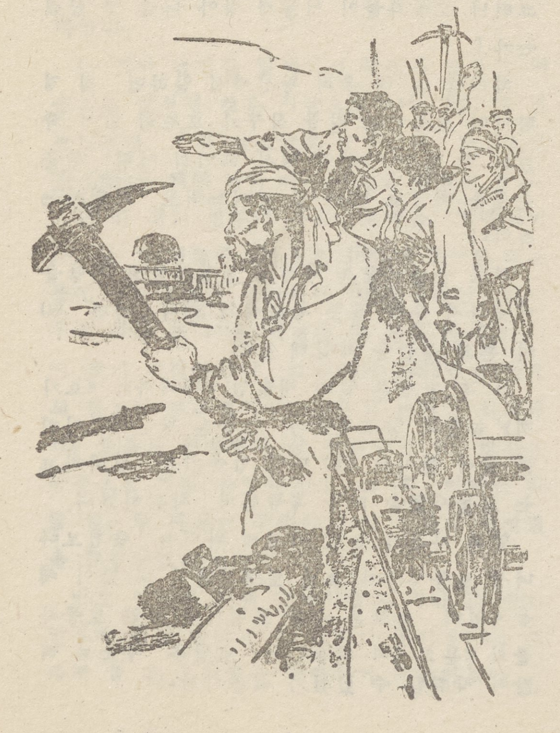
일제나 양키는 그 본성에서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일제 자본가 놈들은 《노다지가 터진다》는 말만 들어도 갱구에 헌병, 순사, 순시, 감독 놈들을 쭉 세워 놓고 엄밀히 로동자들의 몸 수색을 했다. 옷솔까지도 샅샅이 훑었고 지어는 그가 금을 많이 삼키고 나오지나 않았는가 하여 체중까지도 다루어 보았다.

한 번은 열일곱 살 난 계 승운이란 소년 로동자가 천정에서 떨어진 광석 부스러기가 웃주머니에 들어 간 것을 모르고 그냥 나오다가 놈들에게 들켜 어찌나 모질게 매 맞았던지 그 날 밤으로 눈을 감았다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때문에 미국놈이나 일본 자본가 놈들이 앗아 간 매 그람의 금에는 조선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역이 그 만큼 원한 깊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갱도마다에 타오른 투쟁의 불'길

미제와 일제 놈들의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에 광부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다. 생활은 앉아서 죽기보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성시켰다.



1919년 여름, 채광과 선광 부문의 로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30 전 이상 씩 높여 줄 것을 요구해 나섰다.

그러나 오만한 미제 승냥이들은 로동자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광산 총도사무관 우레드란 놈이 일본 경찰을 데리고 총을 내두르며 달려 왔다. 무력으로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극도로 격분한 로동자들은 놈들의 총칼에 맞서 용감하게 광석을 던지며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수만리 바다를 건너 기여든 미국놈 우레드는 로동자들의 돌에 맞아 즉사하였다.

로동자들은 태업과 파업 등 온갖 형태로 놈들을 반대해 싸웠다. 밤을 자고 나면 악질 순시나 감독 놈들이 형체도 없이 로동자들의 손에 없어져 버리는 일이 드문하였다.

특히 1938년 4월에 있은 투쟁은 격렬하였다. 그 때 일본 채광주 《이도》와 화약 주임《요시오까》란 놈은 공연히 생트집을 걸고 두 명의 로동자를 마구 때렸다. 놈들의 만행에 의하여 그 중 한 로동자가 끝내나 억울하게 매 맞아 죽었다.

이 일을 알게 된 수백 명의 광부들은 렬을 지어 그 로동자들의 시체를 높이 추켜 메고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놈들의 사무실 앞에 이른 로동자들은 그 사무실 건물을 산산이 짓부셔 버렸다. 헌병이 달려 오고 경찰이 달려 왔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였다. 로동 임금의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 로동자를 타살한 일본 자본가 놈의 처형 등을 웨치는 로동자들의 함성은 온 밤 광산 마을을 진감하였다.

다음날부터 로동자들은 일제히 산에 올라 화전을 일구기 시작하였다.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견결한 태도의 표시였다.

닷새 후 일제 놈들은 끝내나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승인하고 말았다. 광부들의 파업은 크게 승리하였다.

찬란한 해'빛 아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광산의 연혁사를 접어 놓고 잠시 우리의 광산 마을로 나가 보자!

우선 우리 광산 로동자구에 자리잡은 웅장한 3～4 층 아빠트들이며 3층 학교며 커다란 광산 구락부들이 눈에 띄운다.

어제'날까지는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들이 즐르런히 늘어 섰던 이 곳에 오늘은 얼마나 화려한 청춘의 새 도시가 솟아 났는가!

언진산 기슭의 경치 좋은 숲 속에 자리 잡은 직장 료양소와 야간 정양소들, 로동자구에 높이 솟은 광산 대학 분교며 광업 고등 학교의 웅대한 건물들…지하 궁전을 련상시키는 갱도들에는 전차들이 오가고 갱내 설비와 선광 설비들은 모두다 기계화되였다.

당과 인민 정권 밑에서 우리 광부들의 생활이 얼마나 변모되였는가는 오랜 광부인 김 기학 아바이의 생활 하나만 놓고 보아도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제 때 그는 광산 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스물 여섯 청춘 때 두 눈을 실명 당했다. 일제 자본가 놈들은 그에게 규격에 맞지 않는 화약 봉지를 강다짐으로 발파 구멍에 밀어 넣게 하다가 그런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조그마한 병원에 입원하였다. 돈이 없어서 안해가 치료비 대신 그 병원의 식모살이를 했었다. 그렇지만 눈은 고칠 수 없었다.

자본가 놈들은 실명 당한 그를 광산에서 사정 없이 내쫓았다. 그러니 당장 네 식구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부득이 어린 딸을 남의 집에까지 보냈으나 살'길은 바에 없었다. 어느날 새벽 그는 자기 옆에 안해가 없는 것을 느꼈다. 실명 당한 그가 이리저리 손'더듬으로 찾는데 부엌 천정에서 무엇인가 물큰하였다. 사랑하는 안해가 생활고를 참다 못해 보'장에 목을 매고 자살하였던 것이다.

그 때부터 세 살짜리 아들을 업고 류랑 걸식의 길이 시작되였다. 등에 업힌 것이 아버지의 두 귀를 잡고 이리저리 길잡이를 하면 그는 그 어린것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기며 얻어 먹으러 다녔다.

이역살이 10여 년, 드디여 해방이 왔다. 세 살짜리 아들은 어느덧 광부가 되였다. 어느날 광산 마을에 사리원의 한 의사가 찾아 왔다.

《출장 왔다 들으니 몹쓸 놈의 세상에서 시력을 잃었다기에 찾아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바이에게 광명한 앞날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그는 승용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 수술 후 석 달…그의 《유착성 백내장》은 제거되였다. 아, 찬란한 해'빛이 그의 눈'동자에 환하게 비쳤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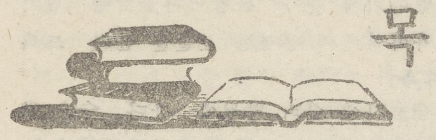
《수상님! 고맙습니다.》하고 그는 목메여 울었다. 일제놈들은 그에게 캄캄한 암흑을 주었고 인민 주권은 그에게 환한 광명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올해 49 세인 그는 지금 갱소년의 기쁨을 안고 광산 선광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날 그렇게도 천대 받던 김 재구 동지는 공훈 광부이자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이며, 정 인필 동지는 로력 영웅이 되였다. 우리 제도 밑에서 기술을 배운 230여 명의 청년들은 기사, 기수가 되여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홀동의 젊은이들은 억울하고 쓰라린 지난날을 잘 알기에 오늘의 행복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하기에 미제 원쑤들이 우리 조국 강토에 침략의 불을 지른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들은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망치를 총으로 바꾸어 들고 용약 전선에 달려 나갔고 오늘은 나라에 더 많은 광석을 보내기 위하여 청춘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고 있는 것이다.





목표를 바로 세우자

학사 박형성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학습도 목표를 바로 세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학습—이것은 단순하고 덜 복잡한 지식으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더욱 심오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나가는 부단한 과정이다. 따라서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해 나가지 않는다면 마치 과녁 없이 활을 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학습을 잘 한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여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목표로》, 《어떤 절차로》, 《무슨 내용으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고리들이 옳게 풀릴 때 학습은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 목표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가장 선차적인 공정으로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선 과학의 체계성과 관련된다. 매개 과학은 자기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적 론리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목표와 계획이 없이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조금씩 맛을 보는 식으로 학습한다면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일찌기 엥겔스는 듀링이 과학을 학습하는 데서 이것 저것 섞어서 소위《종합식》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것이 과학의 체계성을 무시하는 반동적인 견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레닌은 언제나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택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러 가지 서적을 이것 저것 읽는 것은 소득이 적다고 반대하였다. 그는 씨비리 류형 당시 동생 드미뜨리의 학습에 대하여 걱정하면서 이렇게 썼다. 《드미뜨리가 무엇이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건만, 그렇지 않고 그저 <읽는다>는 것은 대체로 소득이 적을 겁니다.》

또한 학습에서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첫 공정으로 되는 리유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자연 생장적 과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적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전면적인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며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습해야 할 량이 더 많아진 데 비하여 사업도 더 바빠지고 시간도 매우 긴장되여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학습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각오 여하에, 목적 의식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런 자각적 열성은 목표를 옳게 세우는 문제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정력을 낳는다. 목표가 뚜렷하고 전망이 명확할 때 학습에서는 정열이 생기고 완강한 의지가 발양되는 것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원쑤들과의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도, 무서운 기아와 추위 속에서도 한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배우고 또 배웠다. 우리 조국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하고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무기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위대한 목적과 혁명적 자각은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굽힘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크나한 열정을 낳았던 것이다. 혁명을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며 배우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이며 고유한 품성이였다.

학습 의욕을 추동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도 일정한 목표를 가진 지향—《뜻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학습에서 지속성과 완강성, 흥미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것은 가장 빠르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왜냐 하면 목표가 뚜렷하면 일상적인 실천 활동이나, 사고 활동을 쉽게 자기의 목적 의식적인 학습과 결합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이 곧 학습 과정으로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17~18 세기 우리 나라의 선진적인 실학 사상가 지봉 리 수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로 배운다는 것은 활을 쏘는 것과 같다. 활을 쏜다는 것은 과녁(목표)에 겨누는 것이다. 진실로 과녁을 겨누었다면 명중하지 못 하였다고 할지라도 목표는 멀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학문을 하는 데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다한 사실들과 경험들은 이것을 잘 실증하여 주고 있다. 황해 남도 신원군 월당리 사료청 부위원장 조 제근 동무의 실례가 바로 그러하다. 그는 초급 중학교 밖에 마치지 못 하였지만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을 받들고 축산 기술자가 되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노력한 결과 이미 축산과 원예 기수의 자격을 받았으며 래년이면 해주 농업 대학 통신 학부를 졸업하고 기사가 된다. 그는 작년에 열렸던 전국 농업 부문 과학 기술 토론회에서 《새끼돼지 육성률 제고》에 대한 자기의 연구 론문을 발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 조 제근 동무는 1967 년도까지 완성할 것을 목표로 《사료의 화학화》에 관한 학사 학위 론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 제근 동무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은 것은 기술을 습득하며 발전시키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라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뚜렷한 목표 밑에 신심을 가지고 오직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험한 벼랑을 겁내지 않고 완강하게 돌진한 데 있다.

그러면 학습에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 청년들이 자기의 준비 정도, 희망, 자기 사업의 특성들을 잘 고려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 나라의 부강 발전에 기여하려는 혁명적 립장에 서서 자기의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목적은 어떤 개인의 출세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 위업에 더 잘 복무하는 데 있다. 그런것 만큼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높은 혁명적 자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초소들에서 우리 당의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전망 목표와 당면 목표를 명확히 세우며 자기의 력량을 잘 타산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성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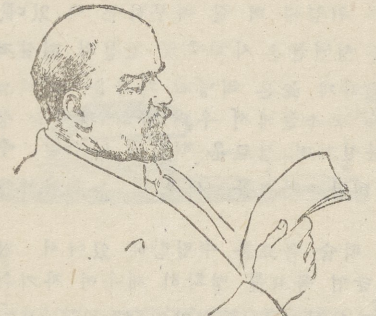
이것은 당면한 학습을 체계적인 지식 습득과 밀접히 련결시켜 주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학습 의욕을 제고시키며 성과를 빠르게 한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왕왕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학습에 달라붙었다가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나약한 데도 있지만 구체적 타산 없이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학습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세운 데로부터 실천하지 못 하게 되고 따라서 점차 학습 의욕을 잃게 되는 데도 적지 않게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 학습 목표는 대체로 전문화의 원칙에서 세우되 일반 기초 과학 분야와 지덕체를 겸비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되기 위한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학습은 보다 원대한 전망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또 습득한 과학 기술 지식의 질을 제고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어떤 부문을 전문하든 여기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외에도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자기의 일상적인 생산 활동과 학습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상에서 간단히 본 것처럼 목표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학습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학습에서 첫 공정으로 되는 목표부터 바로 세우고 우리 혁명 위업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의무인 학습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자.



레닌의 학습 생활에서

—《레닌 회상기》 중에서—

…레닌은 대학에 복교하려고 하였지만 복교 대신 졸업 시험을 치르는 것이 허락되여 1891년 뻬쩨르부르그 종합 대학에서 시험을 쳤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서 출학 당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의 방조도 없이 또한 학년말 시험이나 학기 말 시험도 치지 않고 한 해 동안에 그렇게 잘 준비하여 대학 과정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레닌에게 도움을 준 것은 그의 특출한 재능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상한 근면성이였다.

여름에 싸마라도에서 그가 보리수 우거진 오솔'길에 조용한 서재를 정하고 거기에 땅을 파고 의자와 책상을 놓았던 일이 기억된다. 그는 아침 차를 마신 뒤면 의례히 책을 한 아름 끼고 마치 엄한 선생이 그를 기다리기나 하는 듯 그리로 정각에 나가군 하였는데 그는 거기서 오후 3시까지 있군 하였다. …책상 곁에는 월로쟈가 읽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여라문 발'작쯤 되는 거리에는 길이 나기까지 하였다. …그 곳은 레닌의 진짜 서재였다. 그가 어찌나 계통적으로 공부하였던지 나는 그가 거기서 공부하지 않은 아침을 생각해 내기 힘들 지경이다.…

(아. 이 울리야노바—옐리자로바)

레닌은 체계적으로 또 꾸준히 공부할 줄 알았다. 그는 서적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분석하였으며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독서하였다. 뒤 후에 그는 여러 가지 서적을 이것 저것 읽기만 하는 것은 소득이 적다고 말하던 것이 생각 난다.

레닌은 씨비리에서 보낸 한 편지에서 당시 투옥되여 있던 동생 드미뜨리가 공부를 하는지 어떤지를 물어 보면서 이렇게 썼다. 《드미뜨리가 무엇이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건만, 그렇지 않고 그저 <읽는다>는 것은 대체로 소득이 적을 겁니다.》

레닌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택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체계적이였던 것이다.…

(엠. 울리야노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공부할 줄 안 그는 또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휴식할 줄 알았다. 점심때나 한가한 시간이면 그는 의례히 롱담을 하고 잡담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였고 자기가 웃음으로써 주위 사람들도 웃음에 끌어 넣군 하였다.…

그는 책상에서 열 댓 걸음되는 곳에 레크라고 하는 운동 틀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팔그네 비슷한 것인데 다만 바오라기가 없이 둥근 나무'대기를 두 개의 말뚝에 단단히 고착시킨 것이다. 레닌은 당시 레크에서 운동하기를 즐기였다. …한 가지 동작이 오래 동안 되지 않았다. 되지 않는 이 운동을 해 보려고 그가 얼마나 꾸준히 두고 두고 애를 썼던지 그것은 직접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한 번은 그가 의기 양양하여 빙그레 웃으면서 나더러 이렇게 말하였다. 《운동 틀 있는 데로 가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난 종내 성공했다. 좀 봐라!》 힘든 종목을 훌륭히 해냈다. 레닌은 헐떡거리면서 만족한 얼굴로 레크에 올라 앉았다.…

(데. 울리야노브)

저녁이면 알라까옙까의 농가에서 때때로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것은 레닌이 올가(레닌의 누이동생)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 소리였다. 그는 음악과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며 자신이 즐겨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남의 노래를 듣기도 하였는데 그가 《그대의 눈은 아름답기도 하여라》라는 로만스를 부를 때면 늘 다음과 같이 그 노래를 끝맺던 일이 생각 난다. 높은 음으로 《그 눈으로 하여 나는 죽겠네》 하고는 손을 흔들면서 《죽었다, 죽었다.》 하고 웃는 것이였다.

(엠. 울리야노바)

1895년 12월 9일 레닌은 체포되였다.

체포될 당시 레닌은 그 전 얼마 동안의 긴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신경이 파로하였고 또 건강이 좋지 못 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오래 동안 감옥에 있을 차비를 차리고 다음은 멀리 류형될 것을 예기하면서 그 동안에 뻬쩨르부르그 도서관을 리용하여 자기가 계획한 저작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작정을 하였다. 그는 감옥 안에서의 편지에 학술 서적, 통계집들에 관한 기다란 목록을 보내 왔는데 그 서적들을 과학원과 대학 도서관 또 다른 도서관들에서 구해 보냈다. 나는 많은 책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감방 한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는 하루 동안의 자기 생활을 빈틈 없이 조직할 줄 알았다. 물론 주로 연구 사업으로써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집필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가 감옥에서 수집되였다. …석방되였을 때 레닌은 롱'조로 《날 미리 내놓은 게 유감인데, 책을 좀 더 완성했어야 할 걸, 씨비리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힘들텐데…》 하고 말하는 것이였다. 레닌은 감옥에서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집필했을 뿐 아니라 삐라와 비합법적 소책자들도 썼고 제 1 차 당 대회의 강령 초안도 썼으며 조직에서 토의된 문제들에 자기 의견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아. 이 울리야노바—옐리자로바)

감옥 복도에서 책이 든 여러 개의 상자들을 덜거덩거리며 끌어 내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 책들을 탐독한 사람이 곧 레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명포수에게는 짐승이 제 발로 걸어 온다는 격으로 그는 책장을 급히 훑어만 보아도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으리 만큼 빠른 속도로 세밀히 아는 그 어떤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큰 책이라도 책장을 대충 번져 가면서 저자의 사상이 명백히 표현된 인용문들을 대번에 잡아 내군 했다. 그리고 레닌이 읽으면서 여백에 의견을 써 넣었거나 중요한 개소들에 줄을 그어 놓은 책을 볼 때면 《흠흠!》, 《하하!》 하고 절절하게 감탄사를 써 가면서 바늘로 찌르는듯 한 그의 비판에서 도저히 벗어 날 수 없었다.

(게. 엠. 크르지자놉쓰끼)

독서를 할 때의 레닌의 감수성은 참으로 비범하였다. 나의 안해는 레닌과 함께 크라쓰노야르쓰크에서 미누씬스크로 기선을 타고 동행하면서 그가 독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레닌은 손에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은듯 한 책(외국어로 씌여 있었던 것 같다)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삼십 초도 지나기 전에 그는 새 페지를 번지군 하였다. 나의 안해는 레닌이 한 줄 한 줄 모조리 읽어 내려 가는지 혹은 그저 스쳐 보는지 물었다. 레닌은 나의 안해의 물음에 저으기 놀라면서 웃는 낯으로 대답하였다.

《물론이지요…그것도 매우 주의해서 읽습니다. 그렇게 읽을만 한 책이니까요…》

《그런데 어찌면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레닌은 그가 이보다 뜬 속도로 읽는다면 그가 읽어야 할 책을 죄다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나 자신도 내 기억에 아로새겨진 사실들이 생각 난다. 한 번은 제네바에서 나와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어떤 견해에 열중하여 레닌은 어느 책에선가 인용을 해 가며 자기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던 일이 기억된다. 레닌은 그 때 책을 반 페지 가량 줄줄 거침 없이 내리 읽었는데 그것은 문학적으로 퍽 잘 다듬어진 미끈한 문장이라는 감명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마음이 끌려 레닌한테 가까이 다가 앉아 그 책을 들여다 보았는데 그것이 로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된 책임에 몹시 놀랐다.

(뻬. 레뻬쉰쓰끼)

사로청원의 의무 해설(4)

△사로청원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며 국가 법령과 로동 규률을 지키고 기업 관리 운영에 적극 참가하며 국가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사로청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규정되여 있다.

항상 생기 발랄하고 원기 왕성하고 용감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그들이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 전선에서 실로 위대한 힘으로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공업,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전체 청년들이 공산주의적 근로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장엄한 로력 투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더욱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사로청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부단히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로청원은 우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로동은 인간 사회의 모든 부를 창조하며 인류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로동을 떠나서 인류 사회는 하루도 존재해 나갈 수 없다. 때문에 로동은 모든 사람들이 새 사회 건설에서 지니고 있는 자각적이며 신성한 의무로 된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도 오직 수백만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싫어 하는 현상에 대하여 증오하고 배격하며 항상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도처에서 공산주의적 로동의 모범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할 때 사로청원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자라 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로청원은 또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로력 전선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로력 전선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선다는 것은 인민 경제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긴요한 부문에 대담하게 진출하여 그를 솔선 담당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초소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로청원들은 매 시기 당이 힘을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긴요한 초소를 솔선 앞장 서 맡아 나서야 하며 탄광, 광산, 수산, 림산, 농산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부단히 진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은 그 어디에서나 항상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협조 정신 및 혁명가적 기질을 높이 발양하여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며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생산을 앙양시키는 중요한 추진력으로 되는 청년 돌격대 및 청년 작업반 활동을 창발적으로 조직 전개하며 모든 부문에서 증산 경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로청원은 국가 법령과 로동 규률 준수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 법령은 그것이 모두 우리의 혁명적 전취물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확고한 무기이다. 때문에 국가 법령을 지키는 것은 공민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된다. 특히 오늘 국내외 원쑤들과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전체 인민들이 국가 법령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과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원쑤들의 온갖 파괴 암해 책동을 분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사로청원은 나라의 헌법과 법령을 똑똑히 알고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며 그를 위반하는 현상과 용서 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국가 법령을 얼마나 자각적으로 지키는가 하는 척도의 하나는 로동 규률의 준수에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로동 규률을 잘 지키는가 않는가 하는 것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보여 주는 척도로 된다.

사로청원은 지각, 조퇴, 결근을 하지 말며 480 분 로동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뿐만 아니라 제정된 작업 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제시된 과업을 질적으로나 량적으로 철저히 수행하며 1 인 당 생산액을 부단히 높이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원은 반드시 국가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한다. 국가 계획— 이것은 곧 법이다.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하지 못 하는 것은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사로청원은 자기가 맡은 계획, 그것은 곧 국가 앞에서 지닌 법적 의무로서 만일 그것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 그와 련결된 모든 부문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 국가적 계획 집행에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맡은 계획을 반드시 일별, 주별, 월별로 완수하여야 한다.

특히 사로청원은 현 시기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며 모두가 7 개년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하여 부단히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떨쳐야 한다.

다음으로 사로청원은 기업 관리 운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은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서 그것은 지배인이나 몇몇 개별적 일'군들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의 집체적 지도 밑에 광범한 근로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배인 혼자서 책임지고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 관리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생산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관료주의적인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한 개의 고용자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된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이 다 생산을 잘 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공장의 집체적 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다.》

사로청원은 자기가 맡은 부문의 일에 대하여는 물론 기업 관리의 모든 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여 창발적 의견과 발기 등을 제기함으로써 기업 관리 개선과 생산의 전반적 앙양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이에 있어서 사로청원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에 의하여 도입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농업 지도 체계의 기본 내용과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그의 우월성이 기업 관리 운영에서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로청원은 모두가 생산 혁신자일 뿐만 아니라 유능한 관리 일'군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로청원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높여 모두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강령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위업에 빛나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지상강좌

항일 무장 투쟁 력사 (2)

력사학 학사 송 지 영

인민 혁명 정부의 혁명적 제 시책, 항일 무장 투쟁의 발전, 다홍왜 회의와 요영구 회의

1933년 봄 왕청현에서 소집된 동만 당 일'군들의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사업 과정에서 발로된 착오들(주로 《좌》경적 편향으로부터 산생된 착오들)을 지적하면서 반일 투쟁에 광범한 대중을 집결시킬 데 대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련의 새로운 로선적 문제, 투쟁 방침적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 운동의 전진을 위하여서는 우선 혁명의 무기인 근거지에 수립된 혁명 정권을 쏘베트 형태로부터 광범한 각계 각층 반일 력량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 정권 형태의 인민 혁명 정부로 개편하여야 하며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창조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격대를 질량적으로 강화하며 유격 전술에서 방어전과 진공전을 배합하여 적 통치구 진공전을 강화할 것과 적 통치구에 대한 공작을 강화하여 혁명 조직들을 확대할 것, 반일 부대들에 대한 공작을 강화하여 그들을 반일 투쟁에 적극 추동할 것 그리고 위만군과 자위단 내부 와해 공작을 강화할 것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좌경적 편향과 함께 그를 부식시키는 요소인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강력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면서 혁명 군중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다.

유격대와 대중들을 육성 교양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발행된 혁명적 출판물들은 큰 역할을 놀았다. 당 기관지로서 출판한 《투쟁》, 《량조 전선》, 유격대 신문으로서 《전투 일보》, 대중 단체 신문으로서 《반일보》 기타 《당이란 무엇인가?》, 《유물 사관》, 《사회주의 대의》, 《공청원의 수양》, 《혁명 가곡집》 등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께서 지적한 새로운 투쟁 방침에 따라 사업들을 개편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해방 지구들에서는 쏘베트 정부가 인민 혁명 정부로 개편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인민 정권이였으며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면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위한 정권이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인민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자기의 제 정강을 발표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광범한 대중에게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극소수 반혁명 분자에 대한 엄격한 독재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자기의 통치 구역(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에서 매국노와 반혁명 분자를 제외하고는 16 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일제와 그 주구, 친일 분자들의 일체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매국적 친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다. 녀성들에게 대하여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 평등권을 보장하였으며 민족들 간의 차별을 페지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항일 무장 투쟁의 발전을 위한 혁명적 요구에 적응하게 경제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을 조직하였다.

해방 지구가 처한 특수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근거지 내의 주되는 생산 부문은 농업 생산이였다. 인민 혁명 정부는 반동 지주들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축력, 종곡, 농기구 등을 해결해 주었다. 농민들은 유격대의 식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확물을 인민 혁명 정부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의 일체 후방 공급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간난을 이겨 가면서 전력을 다하여 투쟁하였다.

근거지가 적에게 사면 포위된 조건에서 식량 생산을 위한 사업은 근거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유격 투쟁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정부 주위에 뭉쳐 생산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해방 지구에 대한 계속되는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개인 경리 형태로 경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된 많은 지역들에서는 대중의 자원적 혁명 열의에 기초하여 공동 경리 체계가 조직되였다.

근거지에는 피복창, 병기창들이 설치되여 유격대의 후방 공급 사업을 보장하였다. 인민들의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제반 민주주의적 시책들이 실현되였다. 무료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학교들에서는 교육과 생산 로동 및 군사를 결합시키는 교육 원칙이 창조적으로 실현되고 후대들을 조국과 혁명이 요구하는 인재로 양성하였다. 보건 분야에서는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였다. 대중 계몽 사업과 문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고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대중들은 혁명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자기 손에 정권을 장악한 근거지 내 인민들은 새로운 사회 제도 하에서 실지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 단결이 굳게 이루어졌고 정치적 각성과 혁명 의식이 고도로 제고되였다. 그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충만되여 있었으며 자기의 주권과 혁명적 전취물을 피로써 사수하려는 굳은 사상적 준비와 전투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동만 혁명 근거지(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의 창설과 여기에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의 실시는 조선 혁명이 장차 실현할 새 사회의 원형을 현실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더욱 힘 있게 고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무장 투쟁을 발전시키며 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육성 확대하며 혁명의 군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에 의하여 교양된 대중의 자기 희생성과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 그리고 용감성과 창조적 지혜에 의하여 초시기 유격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극히 주요한 문제였던 무기와 전투 기재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그 장비가 강화되였으며 무장 대오가 장성하였다. 1933년에 벌써 왕청현, 연길현, 훈춘현, 화룡현 근거지들에서는 각각 련대의 력량을 가진 항일 유격대들이 활동하였다.

반(半) 군사 조직인 반일 자위대(1933년 이전에는 적위대라고 함)의 력량도 현저히 장성 강화되였으며 각 현에 대대가 조직되였고 중대, 소대, 반 등이 지역 별, 부락 별로 조직되였다. 또한 주권을 자기 손에 장악한 근거지 내 인민들이 항일 유격대와 혼연 일체가 되여 항상 동원된 태세로 적의 침습에 대처하였으며 근거지의 방위력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근거지 내에 전 인민적 방어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 ×

항일 유격대의 근거지로서, 조선 혁명의 근거지로서의 동만 혁명 근거지가 공고화됨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군사적 공세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근거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항일 유격대가 국내 깊이 진격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광범한 대중 속에 미치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 1932년부터 북부 국경 지대에 대한 경비를 일층 강화하였으며 동북 지방에 대한 병력을 급격히 증강시키였다. 일제는 병력 수를 1933～1936년 간에 5만으로부터 40만으로 증강하였으며 유격대 《토벌》을 위해 신설한 경비 도로만도 약 4만 키로 메터에 달하였다.

한편 놈들은 《집단 부락》을 설치하고 거기에 농민들을 강제로 집결시켰으며 그 내부에서 《보갑 제도(保甲制度)》를 실시하는 등 중세기적 통치 방법으로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 간의 련계를 끊으려 하였으며 각종 밀정망을 조직하고 그들을 혁명 대렬 내부에 파견하기 위한 책동도 감행하였다.

1933년부터는 9. 18 사변 직후에 반만 항일의 기치를 들고 투쟁한 중국 반일 부대의 주력을 공격하는 데 돌렸던 병력까지도 항일 빨찌산 부대들을 반대하는 데 돌렸다.

적들은 1933년 봄부터 동만 근거지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계속되는 적의 침습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로 적의 동기 대부대 공격전을 격파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1933년 4월에 일제는 라남 주둔 19 사단과 기타 병력을 동원하여 4,000여 명의 대부대로써 소왕청 근거지를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작전 계획에 따라 영웅적으로 싸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3 일 간에 걸친 가렬한 근거지 방어전에서 적 400여 명을 살상하고 적의 공격을 완전히 물리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소왕청 방어 전투는 항일 유격대가 조직된 이래 최초의 대규모적 방어 전투였으며 동시에 그 승리는 유격대원들과 근거지 내 인민들에게 최후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기타 연길현, 화룡현, 훈춘현 등 근거지들에서도 적들의 공격을 승리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리하여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내 인민들은 적의 1933년 춘기 대공세를 격파하는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근거지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하여 진공하여 오는 적을 요격 격파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주동적으로 적의 주요 거점들에 대한 진공전을 배합하여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있어서 중국인 반일 부대와의 공동 전선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이 시기 많은 반일 부대들이 동만 지방에 산재하여 있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이 부대들과 항일 유격대와의 협동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였다. 그러나 김 일성 동지는 반일 부대 내 병사 대중들과의 하층 통일은 물론 반일 부대 지도층과의 통일 공작을 대담하게 추진시켰으며 친히 공산주의자들을 대표하여 반일 부대를 상대로 담판을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인내성 있는 설복과 투철한 론리는 반일 부대 내 장관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종래의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항일 유격대와 함께 공동 전선에 참가할 것을 약정하게 되였다. 이 시기부터 반일 부대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였고 1930 년대 중기에 와서는 많은 반일 부대들이 항일 련군에 편입되였다.

항일 유격대와 반일 부대와의 협동 작전 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투는 1933년 9월에 진행된 동녕현성 전투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항일 유격대는 쏘중 국경 지대에 위치한 일제의 중요 정치 군사적 거점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령도하는 항일 유격대에 대한 반일 부대들의 깊은 존경과 신뢰감이 높아졌고 조 중 인민의 단결된 힘의 불패성이 시위되였다.

이 전투는 대병력을 집결하여 유격 근거지를 각개 격파하려는 적의 공세에 대처하여 방어전과 적의 후방을 교란 타격하는 공격전을 배합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의 주도권을 견지해 나가는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유격 전술의 승리였다.

계속 군사적 패배를 당한 일제는 1933년 겨울에 또다시 제 2 차로 되는 근거지에 대한 대규모의 진격전을 감행하여 왔다. 적들은 이 때 장성 강화된 항일 유격대의 력량과 공고화된 근거지를 공격하는 데 최신 무기로 장비된 보병, 기병, 포병 등으로 되는 대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였다.

적들은 5,000여 명에 달하는 대부대로써 왕청현 근거지를 비롯한 연길현, 화룡현, 훈춘현 근거지들에 달려 들었다.

그러나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혼연 일체가 되여 근거지에 수립된 강력한 방어 체계에 의거하면서 영웅하게 싸웠으며 근거지들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제 2 차로 되는 적들의 대규모적 공세인 1933년～1934년 초 동기 공세도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약 2 개월에 걸치는 이 전투에서 항일 유격대와 근거지 인민들은 적 1,000여 명을 살상하였다.

동만 혁명 근거지에 대한 적들의 장기적이고 집요한 대규모적 진공의 격퇴는 근거지가 창설된 지 불과 2～3 년도 못 되는 기간에 항일 유격대가 최신 무기로 장비된 제국주의 군대인 일본군을 괴수로 한 대부대의 적과도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군사, 정치, 도덕적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었다.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 쥔 근거지 인민들의 영웅주의와 혁명적 기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일제의 발광적 공세가 강화되고 식량난이 심한 조건에서 중첩되는 난관들을 이겨 내면서 인민 주권을 고수하며 근거지를 수호하는 투쟁은 류례 없이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유격대와 인민들은 난관 앞에 굴함이 없이 끝까지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교양되였으며 강의한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으며 무장 대오가 확대되고 불패의 력량으로 단련되였다.

항일 유격대의 자체 력량의 강화 발전과 적들의 공격이 대규모적으로 감행되는 조건에서 근거지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격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항일 유격대를 통일적인 지휘에 기초한 단일한 군사 조직 체계로 단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은 1934년 봄에 항일 유격대를 두 개의 사단을 가진 인민 혁명군으로 편성하였다.

인민 혁명군 조직 후 그 전투력은 더욱 제고되였고 유격 부대들은 자기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34년 6월에 동만 근거지 동북방과 서남방에 대한 혁명군 부대의 진공전이 전개되였다.

1934년 6월에 김 일성 동지의 지휘 하에 인민 혁명군 왕청, 훈춘 부대는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의 동북방에 있는 라자구 진공 전투를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지휘한 라자구 전투는 이 지대 혁명 조직들의 활동을 합법화하며 근거지를 확장함에 있어서와 반일 부대와의 통일 전선을 보다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인민 혁명군 각 부대들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조직된 인민 혁명군 독립 련대는 1934년 6월 초에 안도현 처창즈 방면에 진출하였다. 이 부대는 대전자 시가를 완전 점령한 후 약 3 개월 간 대전자, 대사하 그리고 그 북방에 있는 다푸채허를 련결하는 넓은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리하여 대전자 전투 후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는 처창즈 근거지를 창설할 수 있게 하였다.

1934년 겨울에 일부 부대는 로투구시에 대한 진공 전투로써 이 지방 탄광 로동자들에게 큰 혁명적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1934년 10월～1935년 초에 있은 김 일성 동지 친솔하의 북만 원정이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이 처음으로 북만 지역에 진출한 이 원정은 적들의 깊은 후방에서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녕안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 혁명군 부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 대중 속에 공산주의자들과 조선 인민 혁명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그 창건 이래 여러 해 동안의 전투들에서 방어전과 대부대 진공전을 배합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우세한 적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어떤 불리한 정황에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탁월한 유격 전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전투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광활한 지역에서 대규모적 진공전에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또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중심으로 한 무장 투쟁의 승리적 발전으로 하여 혁명 근거지를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었으며 전체 조선 인민에 대한 혁명적 영향을 강화하며 전국의 혁명 운동 발전을 추진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되였다.

× ×

항일 무장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그의 영향 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일제는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기에 광분하면서 그 공격의 초점을 조선 혁명의 중심지인 동만 근거지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근거지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일방 자기의 앞잡이들을 혁명 대렬에 잠입시켜 그를 내부로부터 분렬 와해시키기 위한 간교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시 이러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통칭하여 민생단 분자라고 하였다.

혁명 대오 내에서는 1933 년도부터 혁명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생단 분자들을 적발 숙청하기 위한 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이렇게 되자 근거지 인민들은 적의 군사적 공세를 격파하며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과 함께 근거지 내에서 민생단 분자들을 적발 숙청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반민생단 투쟁은 이 투쟁 행정에서 《좌》경 배타주의적 경향이 발로되여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정치적으로 암둔한 《좌》경 배타주의자들은 조 중 인민들을 리간시키려는 일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에 기만 당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 군중을 민생단 분자로 의심하였으며 심지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배치되는 민족주의 표현이라고 규정하려 하였다.

《좌》경 분자들은 출신 성분이 복잡한 사람들, 사업 상 사소한 착오를 범한 사람들을 덮어 놓고 의심하고 근거 없이 민생단 분자로 락인 찍었다. 여기에 또한 종파 분자들이 끼여 들어 악랄한 책동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 대렬은 내부로부터 분렬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동시에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고립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일제는 이러한 틈을 타서 1934년 말～1935년 초에 걸쳐 또다시 세 번째로 되는 대규모적 군사적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정세는 더욱 악화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복잡한 정세 하에서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 대렬 내부의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 편향을 극복할 데 대한 문제는 1935년 2월 말～3월 초에 소집된 왕청현 다홍왜 회의와 계속하여 3월 하순에 진행된 요영구 회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좌》경적 편향이 발로된 시초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였으며 특히 이 회의들에서 그들의 해독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비판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반민생단 투쟁에서의 착오를 심각히 분석하면서 수 많은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 군중이 아무러한 근거도 없이 순전히 일제의 간계에 넘어 간 《좌》경 분자, 종파 분자들의 무분별한 배타주의적인 독단에 의하여 《민생단》으로 규정되였다는 것을 폭로하였으며 《좌》경적 편향을 시급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대렬은 불피코 분렬되고 혁명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였다.

《좌》경 분자, 종파 분자들이 적아를 혼돈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투쟁의 예봉을 일제와 그의 주구들에게 정확히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어떤 선입감이나 편견, 더우기 민족적 편견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라 엄격히 실지 투쟁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군중의 동향을 피상적으로 속단하는 현상을 일소하고 광범한 반일 대중과 단결하며 비록 정치적 견해로 보아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반일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적극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는 것을 반대한 《좌》경 분자들의 부당한 견해를 폭로하면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 지고 민족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것이 또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홍왜 회의와 요영구 회의에서 《좌》경 배타주의자들, 종파 분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 회의들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원칙적 방침은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정확히 결합시키는 기초 우에서 혁명 대렬의 통일을 수호하고 광범한 반일 대중의 단결을 도모하며 적대 분자들과의 투쟁도 가장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요영구 회의에서는 또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주동성 있게 발전시키면서 조선 혁명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해산하고 인민 혁명군들이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여 적극적 공세에로 이행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회의에서 일부 사람들은 변동된 정세와 반일 혁명의 새로운 발전의 요구를 무시하고 해방 지구를 해산할 데 대한 결정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사수할 것을 주장하여 나섰다.

김 일성 동지는 이러한 주장이 적을 과소평가하고 투쟁의 장래 발전 전망을 보지 못하며 유격 전쟁의 전술적 원칙을 리해하지 못하는 《좌》경 모험주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지구의 사수를 주장하는 견해에는 또한 유격 근거지에서 장성된 혁명 력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를 옳게 리용하려 하지 않으며 그에 의거하여 유격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보수주의 경향도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해방 지구의 해산은 동만 혁명 근거지에서 수 년 간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축적한 혁명 력량을 조성된 새로운 정세 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동시키기 위한 방도였다.

김 일성 동지는 근거지 해산과 관련하여 해방 지구 내 일부 인민들은 인민 혁명군 부대에 참가하게 하고 나머지는 적 통치 구역에서 공작을 강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다홍왜 회의와 요영구 회의 이후 《좌》경 배타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무장 투쟁 대렬의 사상 의식적 통일이 보존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들은 요영구 회의 이후 북만과 남만 그리고 국내 등 광활한 지역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수 많은 정치 공작원들이 각 지방에 파견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혁명군의 주력 부대를 인솔하고 1935년 여름 북만 원정을 개시하였다. 인민 혁명군 부대는 북만 일대를 이동하면서 도처에서 적을 습격 소탕하고 인민 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조 중 인민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그 곳의 항일 무장 대오와의 련계를 강화하였다.

일부 부대는 남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항일 무장 대오들과 련계를 맺으면서 서남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일부 소부대는 국내 인민들의 반일 기세를 높이며 국내에서 유격 활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부 동해안 지대에 파견되여 무산, 풍산,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 령도 핵심은 내외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공산주의 대렬과 인민 혁명군의 전투력을 강대한 힘으로 만들었다. 이 령도 핵심은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직한 지도적 력량으로 단련 강화되였다. 1930 년대 전반기의 모든 투쟁의 경험과 성과는 그 이후의 시기의 항일 무장 투쟁과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밑천으로 되였다.



단편 소설



《박쥐굴》의 비밀

(3)

김 인섭

(4)

바위들이 울퉁불퉁 삐여져 나온 음산한 《박쥐굴》 안에는 가스등'불이 희미하게 비치였다. 여기 저기서 들리는 놈들의 앓음 소리와 뚝 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엇갈아 들린다.

방금 백령도에서 온 웰프스톤은 집채 같은 바위'돌이 금시 무너앉을 것 같은 굴 안의 천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올려다 보고 있었다.

그는 영달이로 인하여 《박쥐굴》의 비밀이 폭로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앞으로의 행동을 달리 정해 주려고 직접 오긴 했으나 정작 와서 사병들의 죽어 가는 몰골을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올랐다.

《미스터 백, 당신은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웰프스톤은 책상을 탕탕 치며 앞에 마주 앉은 백 치원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백 치원은 또 그 대로 웰프스톤이 하는 노릇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일은 점점 곤경에 빠져 들어 가는 데 약속은 하나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도리여 제 쪽에서 큰 소리를 치니 부아가 동했다.

《넨들 어떻겝니까? 사병이란 건 모두 저 따위들이니 혼자서 용 빼는 재간이 있습니까…》

백 치원의 목소리도 거칠어졌다.

《닥치시오, 미스터 백, 당신은 자기의 임무를 잊었습니까? 백 번 죽어 땅 속에 묻힐지언정 옛땅과 어장을 찾겠다던 그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웰프스톤은 억지로 위엄을 빼며 이렇게 한마디 내뱉더니 백령도로 나가면서 자기가 한 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이였다. 허나 백 치원이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였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도 두 개 중대를 책임지고 《박쥐굴》에 있다가 미군이 상륙 전투를 개시하면 인민 군대의 배후를 치고 미군과 만나라는 웰프스톤의 지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 그 지시에 오늘까지 충실해 왔으며 제딴으로는 할 일을 다해 왔다. 그러나 한 달이면 다시 상륙을 하겠다던 미군이 일 년이 가까와 오는 데도 꼼짝을 안 하니 얼마나 더 이 굴에서 징역살이를 하란 소린가.

백 치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굴 생활에 신심을 가질 수 없었다.

《도대체 미군은 언제야 상륙을 합니까? 당신이 약속한 날'자는 벌써 열 번을 더 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엔 굴에서 나가 하루라도 편안히 사는 게…》

백 치원은 입맛을 다시며 돌아 섰다.

《미스터 백, 조급해 마시오. 이 굴은 우리가 장산의 보금 자리를 다시 찾는 관건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영달이를 토출시켜 이 비밀 근거지를 공산군에게 폭로시켰소.》

백 치원은 말문이 막혀 버렸다. 화를 이기지 못 해 나가는 대로 내뱉었으나 옛땅과 옛 어장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끓어 올랐던 것이다.

활개 치며 다니던 장산 반도의 기름진 땅, 무더기 돈이 쏟아져 나오던 구미포 어장, 그리고 곳곳마다에 있던 놀이터…

생각할수록 속이 달아 올랐다. 그는 술을 한 잔 따라 쭉 들이켰다.

웰프스톤은 그의 모습을 훑어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 나 뒤'짐을 지고 어수선한 굴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백 치원이도 마음을 눅잦히며 따라 일어 서서성거렸다.

《영달의 일은 참 잘 안 됐습니다. 고문 각하…졸병놈들은 다 머저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다 이렇게 앓아 자빠지기까지 했으니…》

백 치원의 하소연은 넋두리로 변했다.

《그래, 일어 못나는 놈이 몇 놈이나 되오?》

웰프스톤이 돌아다 보지도 않고 물었다.

《벌써 열 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을 앓기에 그 모양이요?》

《요 먼저 무선으로도 보골 했지만 발진 티브스가 돌아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발진 티브스?》

웰프스톤은 불에 덴 놈처럼 후닥닥 놀라며 눈을 휑하니 올리뜨고 얼굴을 찡그렸다.

《빨리 병자를 골라 내시오. 다른 놈들에게 옮지 않도록 빨리 기상시켜 골라 내시오.》

백 치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보초병한테 소리 쳤다.

《보초병, 자는 놈들을 다 깨워라.》

굴 안에 보초병의 요란스러운 구령이 울렸다. 그러나 사병들은 그 대로 궁궁 앓음 소리만 칠 뿐 일어 날 념을 안 했다.

《빨리 빨리 일어 나지 못 해!》

백 치원이가 또다시 큰 소리를 쳐서야 사병들이 하나 둘 부실부실 일어 났다.

《왜 밤'중에 야단일가, 미군이 상륙했나?》

사병 한 놈이 잠에 취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흥, 너는 밤낮 미군이냐? 십 년을 기다려 봐…》

《그까짓 또 오면 뭘 해, 백 치원이 고기'배 하나 거저 줄 줄 아냐?》

《다 상관 없어, 병에 걸려 래일 죽겠는지 모래 죽겠는지 모르는 판에 미군이 무슨 소용이냐. 이 굴에서나 빠져 나가면 다행인 줄 알아…》

사병들이 지껄이는 이런 소리를 듣는 백 치원은 화를 이기지 못 해 부들부들 몸을 떨며 권총'집에 손을 가져 갔다. 그러자 웰프스톤이 그를 막아 섰다.

《미스터 백, 진정하시오. 병마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백령도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시오.》

웰프스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돌아 섰다.

이윽고 그의 말에 귀가 뜨이던지 병자들이 한 명 두 명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웰프스톤이 백 치원에게 눈'짓을 했다.

《더 옮으면 야단입니다. 저 놈들을 당장 없애 치우시오. 미스터 백, 백령도엔 저런 사람 먹일 약이 없습니다. 귀중한 돈만 없앨 수 없습니다.》

웰프스톤은 또 무어라 백 치원의 귀에 소곤거렸다.

백 치원은 크게 뜬 눈으로 웰프스톤을 쳐다 보다가 중대장을 불렀다. 어느 쪽에서 나타났는지 돼지털처럼 머리가 더실더실하고 무엇을 노려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 사팔뜨기가 황황히 다가 왔다.

《저 놈들을 싣고 여기에서 조금 나가다가 물 속에 처넣고 돌아 와! 알았는가?》

《예…》

사팔뜨기는 허리를 굽실하더니 굴 안에서 대형 고무 뽀드를 끌고 나갔다. 책상 앞에 다시 마주 앉은 웰프스톤과 백 치원이 입에서는 너털웃음이 터져 나왔다.

《호호호…미스터 백, 병마는 이렇게 없애야 합니다. 당신도 지친 것 같은데 돌아 가면 당신을 도와 줄 지도관을 보내 주겠소. 떠내 보낼 때 무선으로 다시 련락할 테니 그 날까지 기다리시오.》

《감사합니다.》

두 놈은 술'잔을 쪼으며 껄껄 웃었다.

(5)

녀간첩을 후송한 지 일 주일이 되던 날, 병수는 대대장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고 5명의 성원과 함께 《박쥐굴》 부근으로 나왔다. 새 임무를 받은 병수는 진종일 흥분에 싸여 있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이였다.

대대에서는 그 동안 녀간첩과 무선기를 리용하여 《박쥐굴》에 대한 비밀을 알아 내였다.

즉 굴 안에는 두 개 중대의 력량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한 문의 포와 두 문의 중기관총이 있다는 것, 그러나 두 개 중대의 력량이라곤 하지만 대부분이 병자이고 그나마 굴 생활에 대한 염증을 극도로 느끼고 있다는 것, 영달이가 드러난 후로 물은 백령도에서 직접 실어다 먹으며 또 며칠 전에 놈들은 영달이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내막을 알아 내려고 창바위'골에 은밀히 기여 들어 몇 명의 인민을 랍치해 갔다는 것…

이러한 적들의 상태를 알아 내자 대대에서는 곧 습격 전투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박쥐굴》은 익측이나 후면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데다 놈들이 굴 입구에 중기와 포를 걸어 놓아서 습격이 용이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대대에서는 백령도에서 물을 실어 오는 배에 《지도관》이 타고 온다는 무선을 잡았다. 그리하여 대대에서는 배를 리용하여 병수를 굴 안에 들여 보내고 그가 입구의 화력 기재를 소멸할 때 동시에 정면 공격을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공격 개시는 래일 아침 다섯시…병수 동무, 수령의 전사답게 용감히 싸워 봅시다.…》

병수는 대대장의 말을 다시금 외워 보았다.



그런 중대한 임무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기뻤다.

백령도에서 웰프스톤이 보내는 《지도관》은 밤 한시에 나타날 것이였다.

병수는 팔을 들어 손목 시계를 내려다 보다가 패기 있는 목소리로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동무들을 《박쥐굴》 일대의 군용 지도 앞으로 불렀다. 그는 곧 매 동무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다.

전투 조직이 끝나자 여섯 명의 전사들은 구명환을 끼고 바다'물에 몸을 잠그었다. 쪼각달'빛이 비낀 검푸른 바다의 물'결은 전에 없이 잔잔하였다. 높지 않은 파도가 미끄러지듯 몰려 와서는 여기 저기의 바위들에 부딪쳐 철썩인다.

전사들이 각기 자기의 위치를 차지한 후 병수가 시계를 내려다 보았을 때는 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불'빛이 끔벅거리는 백령도 쪽을 쏘아 보기도 하고 《박쥐굴》 쪽을 노려 보기도 하며 한초 한초 기다려 가는 전사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병수는 아버지, 어머니를 앗아 가고 다시 장산 반도에 발을 붙이려고 하는 백 치원의 낯바대기를 그려 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기어이 《박쥐굴》을 점령하고 원쑤들을 소멸하리라—

지정된 시각이 되자 예상 대로 적들이 나타났다. 백령도 앞에서 들려 오기 시작한 부르릉 소리가 점차 가까와 왔다. 병수는 신경을 모으고 그 쪽을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이윽고 발동선이 해안에서 약 500 메터쯤 떨어진 곳에 와 멎자 뒤에 달려 오던 전마선이 쫄깍쫄깍 노를 저으며 《박쥐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전마선이 발동선에서 100 메터실히 리탈되자 절단 가위를 든 한 전사가 먼저 물 속으로 뛰여 들었다. 때를 같이 하여 해안에서는 적 발동선에 대한 일제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미 계획되였던 대대의 일제 사격이였다.

《뚜루룩 쾅쾅…》

포 소리, 기관총 소리…해안은 콩 볶듯 했다.

병수는 두 전사와 함께 쏜살같이 전마선으로 올라 갔다. 예견할 수도 없었던 물 속에서 세 사람이 불쑥 나타나자 전마선에 탔던 노수와 《지도관》 놈은 질겁을 하였다.

《파견장을 내놓으시오.》

병수는 위엄 있게 《지도관》 놈을 쏘아 보았다.

《파견장이라니요? 저는 물을 길어 오는…》

《닥치시오.》

기관총 소리는 여전히 자지러지게 울렸다. 불의에 타격을 받은 발동선이 부르릉 하더니 날 살려라 하고 꽁무니를 뺀다. 병수는 지체 없이 《지도관》의 복장을 벗겨 바꾸어 입고 파견장과 무기를 빼앗은 후 발동선에서 분리된 전마선의 노를 잡았다. 다른 두 전사는 결박당한 《지도관》과 노수를 각기 붙잡고 배에서 뛰여 내렸다.

병수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 가다가 전마선의 배'머리가 《박쥐굴》 앞 바위'돌에 부딪치자 급히 배에서 뛰여 내려 굴 입구로 들어 갔다.

《누구야, 정지!》

《지도관이다.》

기관총 옆에 있던 놈이 소리를 치자 병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균형을 잃은 척 비칠거리면서 놈에게 물었다.

《백 대장은 어디 갔어?》

《예?》

《백 대장은 어디 있는가 말이다.》

병수는 꽥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울빼미 같은 눈깔로 병수를 올려다 보던 놈이 그제야 지도관임을 알아 보고 흠칫 놀라면서 그의 팔을 부축했다.

가스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수선한 굴 안으로 몇 발'자국 들어 가다가 병수는 백 치원이와 마주쳤다. 팔을 부축하고 들어 가던 놈이 자세를 바로 잡으며 말하였다.

《대장님, 지도관님이…》

《아—이거 안 됐습니다. 이 놈들이 오늘따라 어떻게 갈개는지…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처럼 혼자서 노를 저어…》

《당신들이 일을 잘 해서 노수가 총에 맞아 물'귀신이 됐소.》

《거 참, 미처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백 치원은 방금 백령도의 웰프스톤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지도관》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선을 받고 대책을 세우려 황황히 달려 나오던 차라 못내 반가와 하며 병수의 손을 움켜잡았다.

병수는 유들유들한 볼을 씰룩거리는 백 치원의 낯짝을 올려다 보는 순간 가슴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불끈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써 참아 나갔다.

《백 대장, 공산군이 매일 이렇게 싸웁니까?》

《요 즈음에 와서 점점 더 합니다.… 자, 어서 좀…》

백 치원은 굽실거리며 자기도 한쪽 팔을 부축하고 굴 속으로 들어 갔다.…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다섯시가 가까와 왔다.

병수는 백 치원이와 마주 앉아 이것 저것 물어 보다가 지정된 시간이 다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 섰다.

다섯시!

잠시 고요하던 바다 우에 붉은 신호탄 세 발이 올랐다. 그러자 수 많은 조명탄이 《박쥐굴》 입구를 대낮처럼 비쳐 대고 상륙정들이 쏜살같이 들이닥치며 《박쥐굴》에 불'줄기를 뿜었다.

《뚱뚱뚱뚱 쾅쾅…》

《박쥐굴》은 삽시간에 격전으로,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굴 입구로 휙휙 날아 드는 예광탄이 굴 안의 바위에 부딪쳐 휘파람 소리를 낸다.

백 치원이 달려 나와 빨리 사격을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미친듯이 몰아쳤다.

병수는 수류탄을 뽑아 들고 굴 입구로 다가갔다.

겁에 질려 비실비실 뒤로 물러 서던 백 치원이 이 번에는 중대장을 다급하게 불렀다.

《중대장, 빨갱이들을 빨리 끌어 내다가 굴 앞을 막아라.》

그 놈은 분명 그런 방법으로 아군의 화력을 일시 중단시킨 다음 정황을 수습하자는 것이였다.

아니나 다를가 잠시 후 환한 굴 입구에 인민들이 끌려 나오기 시작하자 대대에서는 일시에 화력을 멈추었다. 그 순간 인민들 속에서는 격한 웨침이 터져 나왔다.

《인민 군대 동무들, 념려 말구 쏘아요. 빨리 쏘아요. 원쑤를 잡아 줘요—》

병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격이 일시에 멎은 것도 그러했지만 인민들이 막아 서서 수류탄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우렁차게 울려 오는 인민들의 웨침 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수류탄 대신 시퍼런 칼을 뽑아 들었다.

—명령을 수행하며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우측 중기관총 곁으로 다가 간 병수는 날쌔게 사수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박았다. 다음 순간 중기를 빼앗아 쥔 그는 총신을 옆으로 돌려 다른 한 문의 중기와 비반충포에 불벼락을 들씌웠다.

그가 다시 총신을 굴 안으로 돌리고 압철을 누르려고 할 때였다. 황황히 들아 치면서 사병들을 내몰던 백 치원이가 병수를 보고 《앗!》 소리를 치더니 쥐였던 권총으로 고를 넙다 쏘았다.

병수는 어깨가 선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압철을 눌렀다.

《뚜루룩…》

백 치원은 병수를 덮칠 듯 달려 나오다가 그만



칼에 절린 돼지처럼 《꽥!》 하고 비명을 울리더니 몸을 비틀면서 덜썩 땅'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병수는 어깨가 허전해 왔으나 온 몸의 힘을 량 팔에 모아 가며 압철을 더 억세게 눌렀다.

노한 기관총은 굴 안을 들었다 놓으며 연방 불'길을 뿜었다. 굴 안은 요란한 총성과 함께 놈들의 비명 소리로 가득찼다.

인민들이 환성을 올렸다.

바다에서 오른 전사들은 시퍼런 총창을 비껴 들고 연방 굴 안으로 들이닥쳤다.

* *

병수는 대대장 앞에 다가 섰다.

《대대장 동지,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병수 동무, 참 장하오!》

대대장은 병수를 와락 그러안고 오래도록 놓을 줄 몰랐다.

인민들도 달려 와서 연방 병수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병수는 머리를 들고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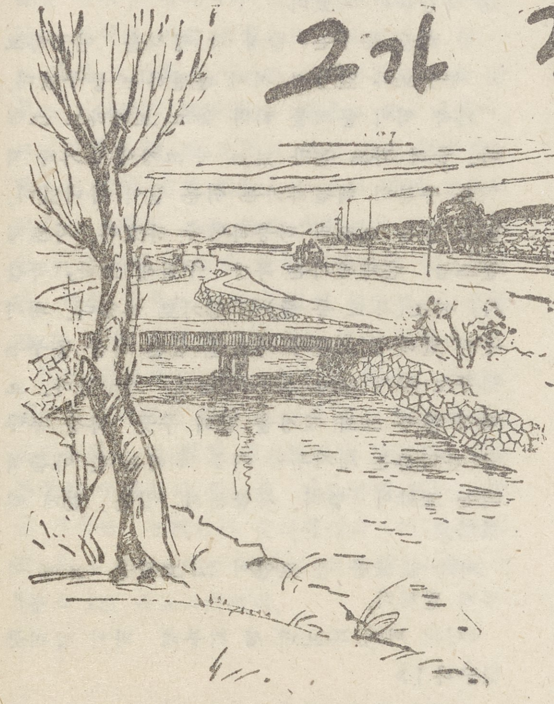
《대대장 동지, 더 어려운 전투 임무를 맡겨 주십시오.》

《옳소, 병수 동무! 저 백령도와 같은 놈들의 소굴이 아직 그 대로 숨 쉬고 있는 한 우리의 투쟁은 끝날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투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병수와 전사들은 대대장의 말을 들으면서 백령도를 쏘아 보고 있었다. 병수는 그렇게도 밀어 오던 졸개를 잃어버린 웰프스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방금 들려 오는 것만 같은 악마의 소굴을 주시하면서 또다시 다음의 전투를 마음 속에 준비하고 있었다.

—끝—

그가 걸어 온 4년



방 하삼 동무는 4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야마구찌현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갖은 민족적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었다. 이국살이에서 그의 청춘과 희망은 여지 없이 짓밟혔었다.

1960년 섣달도 다 간 어느 날 그리운 조국의 품에 안긴 하삼 동무는 이 곳 홍상군 련지 협동 농장에 배치되였다. 꿈'속에서까지도 그리던 조국에 돌아 온 기쁨으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 하삼 동무는 자기를 맞아 주는 가없이 넓은 눈덮인 홍상'벌—조국의 대지를 바라 보고 있었다.

(얼마나 그립던 조국이냐!)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일본 사람의 땅 한 뙈기를 얻어 붙이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목메여 찾던 조국의 땅인가…

그는 눈덮인 벌판에서 마구 뒹굴어 보고 싶었다.

조국의 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에게는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이 더 컸다.

(조국의 대지 우에 나의 청춘을 한껏 꽃피워 보리라!)

그는 이렇게 주먹을 부르쥐였던 것이다.

하삼 동무는 마을에 온 이튿날부터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초병으로 된 긍지도 높이 일에 달라붙었다. 모든 일이 즐겁고 자랑스러웠다. 농장에서는 오랜 려행의 피로도 풀겸 자리가 잡힐 때까지 쉬라고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내 어찌 한시인들 무료히 보내겠는가.)

그는 대지 우에 자기의 보람찬 첫 걸음을 바로 이렇게 내디디였다.

얼마 후 하삼 동무는 마을에서 책임성 높은 청년으로, 농장의 믿음직한 젊은 주인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한창 랭상모판을 준비할 때의 일이였다. 사람들은 랭상모판 만들 자리에 밤마다 소문 없이 모래가 쌓이군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삼 동무와 몇몇 청년들이 일을 끝내고 밤마다 슬그머니 달구지를 가지고 실어 온 모래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몇 대의 달구지가 얼음 우로 강을 건너 가고 있었다. 겨울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날씨는 몹시도 맵찼다. 그러나 하늘에 무수한 별들은 그의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달구지를 앞세우고 생각에 잠겨 걷던 하삼 동무는 발을 헛디디여 얼음 구멍에 빠지고 말았다. 그가 겨우 얼음 우로 나왔을 때는 겨드

랑이까지 물참봉이 되고 말았다. 맵짠 새벽 바람이 그의 젖은 옷을 당장 소가죽처럼 만들어 놓았다. 뼈'속까지 땡'기가 스며 들었다.

하삼 동무는 얼'결에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돌아 섰다.

(아니야, 동무들이 이걸 모르니 다행이지. 소리를 쳤더면 모두 달려 왔겠지.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 나를 입혀 집으로 돌려 보냈을 거야… 그런데 마을에까지 갔다 오려면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게고… 모래 싣는 일을 나 때문에 그릇칠 수는 없다. 그 대로 얼른 따라 가 한 달구지 싣고 가야 한다.)

그는 옷을 쥐여 짜 입고 달구지들이 간 쪽으로 내달렸다. 그들이 모래를 한 달구지씩 싣고 와서 부리자 날이 새기 시작하였다.

《아니, 그 옷이 왜 그런가?》

그 때에야 하삼 동무의 옷을 본 동무들이 달려 들어 얼어 붙은 단추를 벗기며 그를 부축해 들였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있은 적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삼 동무의 혁명 임무 수행에서 보여 준 높은 책임성에 깊이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당이 자기에게 맡겨 주는 일이라면 밤'잠조차 잊고 이악하게 해 나갔다.

부림소를 관리하던 그가 축산반 일을 보게 되였을 때다. 그 동안 부림소를 관리하는 일은 손에 익었지만 돼지 사양은 전혀 생판이였다. 그러나 당이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것을 안 하삼 동무는 두 말 없이 팔 걷고 나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남보다 더 애를 쓰느라고 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새끼 돼지 생산 계획을 겨우 90% 정도 밖에 못 하였다.

그가 자기의 높은 책임성으로 해서 이 일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걱정하지 말라구. 차츰 손에 익으면 동무도 남들처럼 많은 새끼 돼지를 내게 될 거요.》 하고 그를 고무하여 주었다.

과연 세포 위원장 아바이의 말 대로 그는 짧은 시일 내에 사양 지식도 높이고 남 못지 않은 사양공이 되였다.

방 하삼 동무는 항상 당 정책을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관철하는 동무였다.

가축 먹이 문제를 하나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둘러 봐도 논만 있는 이 고장에서 가축 먹이를 충분히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있는 땅은 모조리 리용하여야 하였다. 사로청 분조급 단체에서는 목장 주변에 호박, 뚝감자, 싸조(사료 용 풀)를 심기로 하였다. 돼지 우리 둘레에 호박과 싸조를 심은 하삼 동무는 하루도 잊지 않고 그를 정성껏 가꾸었다. 오래지 않아 그의 정성을 말해 주듯 하삼 동무가 관리하는 돼지우리 지붕 우에는 한 아름씩 되는 호박이 열려 사람들의 입을 벌게 하였다.

목장에 왔던 한 로인이 그 호박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마치 홍보네 집 지붕에 박이 달리듯 했구나!》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억연 양돈 분조장 아바이가 자못 자랑스럽게

《여름내 돼지에게 따 먹인 호박까지 합하면 이 한 지붕 우에서만도 한 톤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 하삼이가 심은 호박이 홍보네 박통보다 못지 않은 보배지요.》 라고 대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 낸 것으로 가축을 잘 먹이니 목장적으로 계획을 125% 이상 넘쳐 하게 되였다.

그 뿐만이 아니였다.

당이 모든 농장원들의 집에서 가축을 길러 100∼150 키로 그람 이상의 고기를 내라고 하였을 때 하삼 동무는 2 작업반을 솔선 담당하고 나섰다. 그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꼭 집집을 돌아 보고 병든 가축이 없는지, 수매시키고 새끼를 갔다 주어야 할 집은 없는지 알아 보고 그 때마다 해결하여 주군 하였다. 그가 50여 리나 되는 목장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작업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든 집에 10 마리 이상의 닭을 치게 한 것은 그 중 한 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어려운 혁명 과업을 앞장 서서 수행하여야 할 사로청원들이 높은 일반 지식과 기술 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도 하삼 동무는 이악하게 달라붙어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하여 4 년 전 조국의 품에 안겨 동무들의 방조를 받아 가며 처음으로 우리 말과 글부터 배우기 시작한 그는 야간.중학교를 거쳐 이제는 기수 검정 시험에 일곱 과목이나 합격하였다. 하삼 동무는 언제나 실천 활동에서 배웠고 또 배운 지식을 실천에서 더욱 익혔다.

10대 과업에 제시된 알곡과 축산물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축산 작업반에서 새끼돼지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였다. 하삼 동무는 수의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에 근거하여 새끼돼지의 《45 일 처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률을 종전의 3분의 1로 축소시키였다.



민청 제 5 차 대회 전으로 금년도 자기의 년간 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는 년말까지는 220% 이상 초과 완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엇이 그를 이 4 년 동안에 그렇듯 훌륭한 청년으로 키워 주었는가?

하삼 동무는 일기의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지난 4 년 동안을 생각하면 나는 꿈만 같다. 이국 땅에서 천대 받으며 가난에 쪼들리던 우리 식구는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죽어도 조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시던 아버지는 정말 돌아 가셔서야 소원을 풀게 된 셈이다. 아버지의 유골이나마 모셔다가 마을 뒤'산에 안장하였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지 않는가.

나의 행복, 나의 성장—이 모든 것은 당이 준 것이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런 데도 당에서는 내가 한 자그마한 일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도 과분하게 칭찬하여 주신다.

나라의 행복이자 나의 행복인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그러한 일쯤은 누구나 응당 할 일이 아닌가…특히 젊은 청춘들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인가…》

하삼 동무는 오늘 홍상군 사로청 위원회, 그리고 련지리 사로청 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와 10대 과업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로청원 방 하삼 동무는 국기 훈장 제 3 급과 사로청 중앙 위원회 모범 맹원 휘장 등을 수여 받았다.

그렇다. 조국의 품은 지난날 천대 받던 하삼 동무에게 행복이 무엇이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었다.

본사 기자 한 현준



남조선 청년 운동에서의 초미의 문제

전 진 석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최대의 민족적 과업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조선 형제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이다.

혁명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 세력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하루 속히 몰아 냄이 없이는 민족 해방의 혁명도,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 혁명 과업의 완수도 생각할 수 없다.

미제는 오늘 국제 반동의 두목일 뿐만 아니라 남조선 위정자들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전대 미문의 파쑈적 테로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청년들이 그 어느 나라 청년들에 비할 바 없는 가장 악랄한 적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남조선 청년들이 미제를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내고 민족 해방의 혁명 과업을 완수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는 무엇인가?

김 일성 동지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과 함께 남조선 청년 운동의 진로를 명확히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선진 분자들로 조직되는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당의 활동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는 혁명적 당의 창건-이것은 오늘 남조선 혁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적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착취 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원래 지배 계급은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 서려 하지 않으며 한편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정권을 쟁취하려 한다. 그리하여 이 량자 간에는 치렬한 계급 투쟁이 벌어진다. 이러한 계급 투쟁을 성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자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계급 투쟁의 선두에 서서 대중을 령도하며 이끌고 나아가는 선봉적 부대이며 정치적 조직체인 당을 조직한다. 이와 같은 당의 령도 없이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로 남조선 청년들이 혁명적 당을 창건하지 않고서는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박정희 괴뢰 정권을 뒤집어 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것은 력사적 경험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온 겨레가 일제를 대적해 나섰던 3.1 봉기, 원산 총파업, 광주 학생 운동 등이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제와 리 승만 파쑈 독재를 반대하여 분연히 일어나 용감히 싸운 4월 봉기의 열매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에게 빼앗긴 것도, 남조선의 42 개 지역에서 53 개의 대학, 173 개의 중고등 학교 학생들과 일부 시민까지 포함하여 31 만여 명이 참가한 6.3 봉기가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지 못 한 것도 바로 혁명적 당의 령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때 혁명적 당이 있었더라면 청년 학생 운동은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였을 것이며 그것은 더욱 조직화되고 발전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남조선 청년들은 이와 같은 쓰라린 력사적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 인테리들의 선진 분자들로 조직되는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남조선 청년들은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그 당의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남조선 청년 운동이 혁명적 당의 합법적 지도를 받지 않고 민족 해방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지 않고서는 혁명적인 당의 창건도, 당의 활동의 자유도 쟁취할 수 없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청년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청년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보적 사상을 가진 핵심 대렬을 꾸려야 하며 혁명적인 청년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청년 조직을 도처에 결성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공장과 농촌의 근로 청년들과 혁명적 학생들 속에서 핵심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진리와 리상적 사회에 대한 불타는 동경심, 정의감을 소유하고 있으며, 난관을 두려워 하지 않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는 열화 같은 정열, 진취성, 용감성과 같은 귀중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며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회를 타파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적 정신을 발휘한다. 특히 식민지 예속 국가의 청년들은 민족적 각성과 반제 사상이 강하며 민족 해방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회 변혁에서 진실로 큰 역할을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적 당의 령도와 함께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인 청년 조직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남조선 청년들이 자기의 혁명적 조직을 결성하고 청년 운동의 통일성과 조직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면 그것은 민족 해방 혁명 승리를 위한 무궁 무진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청년들이 통일적으로 조직화되지 못 하고 분산적으로 투쟁한다면 그것은 무력한 존재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에서 청년들이 혁명적 청년 조직에 튼튼히 결속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혁명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최근 시기 남조선 청년들이 《4월의 붉은 피는 매국 정권을 증오한다》, 《4.19 정신, 반정부, 반 독재》, 《중앙 정보부 해체》 등 구호를 들고 대규모적인 애국 봉기에 궐기하였으나 남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를 청산하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발전하지 못 한 것도 혁명적 당과 함께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 없는 것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혁명적 조직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단련과 수양의 학교이다. 혁명적 조직은 청년들 속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계통적으로 보급하여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계급 투쟁 과정을 통하여 수 많은 혁명 투사들을 길러 낸다.

때문에 남조선 청년들은 혁명적 청년 조직을 시급히 결성하고 수 많은 핵심들을 길러 내면서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청년들의 핵심 대렬을 꾸리는 동시에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체 청년들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묶어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혁명은 전체 인민 대중이 혁명에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된다.

특히 남조선 청년들은 극소수의 특권 지배층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제와 그 주구들의 혹심한 식민지적 억압 밑에서 실업과 기아와 빈궁에 헤매고 있으며 미제의 대포'밥으로 끌려 나가고 있다.

그들이 처하여 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

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 청년들은 거개가 민족적 억압과 천대에 분개하고 있으며 동포애와 정의감에 불타고 계급성과 진취성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을 옳게 지도하고 교양한다면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 투쟁에 대담하게 투신할 것은 명백하다.

최근 남조선에서 로동 쟁의, 농민 투쟁, 청년 학생 봉기, 언론인들의 투쟁 등 각 계층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때문에 신앙과 정견,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체 청년들을 반미 구국 투쟁의 한 기'발 아래에 묶어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또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 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원래 청년 학생들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에는 속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계급이나 계층은 아니다. 때문에 청년 운동은 오직 로동 계급과 농민들의 치렬한 계급 투쟁과 밀접히 결합될 때만이 진정한 혁명 운동으로 될 수 있으며 혁명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과 혁명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오직 남조선 청년들은 혁명적 당의 령도를 받는 혁명적 청년 조직을 결성함으로써만이 그리고 청년 운동이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될 때만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박 정희 괴뢰 정권을 뒤엎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쟁취할 수 있으며 민족 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통일 단결은 청년들의 힘을 십배, 백배로 강화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통일 단결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투쟁 앞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물'줄기의 《소유권》

남조선에서 물'줄기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 싸고 3 년 동안이나 재판 소동을 벌려 온 희한한 사건이 최근에 드러났다.

사건은 8.15 해방 전에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던 온양 온천 물'줄기를 해방 후에 미 군정청에서 그의 며느리였던 한 조선 녀자에게 물'줄기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그 후 괴뢰 정부 판재 당국에서 그 녀자에게서 온천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제 3 자에게 넘겨 준 것이 말썽이 되여 그때부터 이 물'줄기는 소유권을 에워 싸고 3 년 동안이나 재판정에서 옥신각신하는 아귀다툼을 빚어 냈던 것이다.

결국 이 재판 소동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최근 물'줄기의 소유권을 일본 사람의 며느리에게 돌려 주라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판결 리유인즉 미 군정청은 《합법적 정권》이며 따라서 그가 내린 소유권 이전 처분도 《합법적》이며 《합법적 정권》의 《합법적 처분》을 인정치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과연 《명 판결》이다.

미국 상전의 《권위》와 그가 한 일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꼭 들어 맞게 《법 리론》을 따지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판결》을 내렸으니 말이다.

하기는 미국 상전에게 명'줄을 걸고 있는 그들로서는 달리는 《판결》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도 단순한 《법리론》을 캐는 데 3 년이라는 긴 세월을 랑비한 것은 좀 머리가 둔한 편이라고 해야 할 것이나 그것도 재판의 《신중성》을 기하는 의미에서였겠으니 어쨌던 주구로서의 《충실성》 만은 충분히 증명한 셈이 아닌가.



임진록

(2)

김 상 훈

(2)

임진년 4월 13일이였다.

부산 첨사 정 발이 군사들을 데리고 절영도 섬에 가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갈매기와 물'새 떼들이 바다 쪽에서 날아 왔다.

그것이 너무도 수상해서 바다 우를 바라 보았더니 벌써 일본 침략선이 바다를 덮어 밀려 오는데 기'발과 창끝이 하늘을 가리고 나팔 부는 소리가 벽해를 뒤흔드는듯 하였다.

정 발이 너무도 놀라 황망히 부산성 안으로 돌아 오는데 미처 영문안에 들어 서지도 못해서 일본 침략자들의 선봉이 거리에 들이닥쳐 부산은 함몰되고 말았다.

적장 평 조익이 대군을 재촉하여 동해로 쳐들어 가니 백성들이 늙은이는 업고 아이는 이끌고 피난들을 가는데 아우성 소리 하늘 땅 사이에 가득차고 미처 피하지 못 하여 적의 발'길에 밟혀 죽는 자도 수 없이 많았다.

경상도의 륙군 지휘를 책임 지고 있는 좌병영 병마 절도사 리 각이라는 자도 겨우 몇 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래를 향하여 가다가 적병이 동래로 향함을 보고 너무 질겁을 하여 군사를 물고 소산역으로 물러 났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동래 부사 송 상현은 미처 군사를 다 모으지도 못 하고 성문에 올라 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다. 그러나 사면으로 둘러 싼 적들이 급히 쳐 들어 오니 그 형세를 어찌 당할 수 있었으랴.

송 상현이 좌우를 돌아 보니 군사들은 다 죽고 다만 군관 김 상이와 종 십여 명이 남아 있을 뿐이였다. 그는 싸워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관복을 입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우리 모두 나라에 충성치 못 하여 변방을 지키다가 도적을 못 막고 도리여 도적의 손에 죽사오니 저 푸른 하늘은 밝게 내려다 보옵소서.》하고 웨쳤다. 그리고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여서는 쥐였던 부채에다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불효자 상현은 [illegible]각를 위하여 변방을 지키다가 일본 침략자들을 만나 부모님을 다시 뵈옵지 못 하옵고 오늘 목숨을 끊사오니 이 슬픔 하늘에 사무치옵니다.

바라옵건대 부모님은 만수 무강하옵소서.

임진 사월 십오일, 불효자 상현은 먼저 가나이다.》

그는 부채를 고이 접어 정성들여 싸서 평소에 가깝게 심부름을 시키던 종 영남이에게 주며

《너는 이 부채를 가지고 나의 부모님이 계시는 데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깊은 산중으로 피난을 하라.》하였다.

영남이도 이 비장한 유서를 받아 드니 일본 놈들에 대한 격분이 너무도 치솟아 올라 차마 그 곳을 떠나지 못 하였다.

이 때 적장 평 조익이라는 자가 긴 창을 휘두르며 군사들을 헤치고 들어 와서는 송 상현의 앞에서 넙적 절을 하였다.

《부사는 나를 알아 볼 수 있소이까?》

《네 이 놈, 네가 전 번에 우리 나라를 속이고 이 번에는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평 조익이란 자는 전쟁이 일어 나기 전에 평 조신이라는 일본 사신을 따라 조선에 온 일이 있었는데 그 때는 갖은 아첨을 다하였으며 당시 동래 부사 송 상현은 그 자에게 너그럽고 후한 대접을 해 주었던 것이다.

평 조익은 말'소리를 더욱 낮추어

《내 비록 일본의 장수오나 그대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으니 어떻게 그대를 해치겠소. 내 그대를 구원하려 왔소. 내 옷을 벗어 줄 터이니 바삐 갈아 입고 도망을 가시오.》

이 말을 들은 상현은 노기가 털끝까지 치밀어서 큰 목소리로 꾸짖었다.

《내 네 놈의 간사한 꾀에 속아서 비겁하게 살기만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저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네 놈의 덕으로 구구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서 나를 죽여라.》

상현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평 조익은 민망한 얼굴색을 지으며 여러 번 피신하기를 재촉하니 상현이 잠간 무엇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 너에게 청할 것이 있다. 내 본가에 통지를 할 일이 있어 하인 한 명을 너이들의 진 밖으로 벗어 나게 해 다오.》

평 조익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상현이는 영남이를 데리고 적진을 뚫고 나가는데 슬프게도 그 사이에 벌써 다른 왜장이 달려 와서 상현을 죽여 버렸다.

군관 김 상이는 상현의 죽음을 보고 대성통곡한 다음 창을 들고 나서 왜놈의 군사들을 무수히 찔러 죽이고 마지막에 창끝이 부러지니 기와집 우에 올라 가서 기와'장을 벗겨 왜놈들을 무수히 쳐 죽였다. 그는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웠다.

일본 침략자들도 다급하여 총을 가지고 와서 쏘니 흉악한 철환에 김 상이도 쓰러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경상도의 중요한 도시이며 방어 요재인 동래성도 함몰되고 말았다.

부산과 동래가 적의 손아귀에 들고 기타 수많은 고을들이 짓밟히자 좌병사 리 각은 첩년과 재물을 싣고 야밤에 삼십륙계를 놓았고 경상 감사 김 수도 벌벌 떨면서 쥐구멍만 찾았다.

그러나 완악한 적들은 승승장구하여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밀고 들어 왔다.

령남 땅에서는 이렇게 사나운 불'집이 타 번지고 있었으나 서울 조정에서는 깜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니 문득 하루 아침에 이러한 기별이 올라 왔다.

…일본 군사가 무수히 건너 와 동래 부산을 함몰시키고 갖은 잔인한 칼부림을 다 하니 각 고을의 원들이나 감사는 대개 도망을 치고 백성들은 난리를 피해 갈팡질팡하며 도적은 이 기회를 타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의 한 패는 륙로로 밀양을 지나 서울로 올라 오고 있으며 다른 한 패는 수로로 전라도 섬들을 공격하고 있으나 각 고을에서 미처 손을 쓸 사이도 없이 혹 적에게 맞아 죽기도 하고 도망을 치기도 한다…

왕은 이런 기별을 듣고 깜짝 놀라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의논을 하였다.

《나라 형편이 이 지경이 되였으니 누가 대장이 되여 도적을 막겠는가.

그대들은 바삐 훌륭한 장수를 골라서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내려 가 적을 막도록 하라.》

조정 신하들도 어이할 바를 몰라 떨떨 떨고만 있다가 그 중 몇 사람이 말문을 열었다.

《리 일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고 용감하오니 그를 대장으로 정하여 내려 보내옵소서.》

왕은 그 자리에서 리 일을 순변사로 정하여 곧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치려 내려 가라고 하였다.

왕의 명령을 받들고 갑옷을 떨쳐 입은 리 일은 좋은 말에 올라 타고 령남 땅으로 향하면서 각 고을 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 거느리고 대구로 모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때 경상 감사 김 수가 순변사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각 고을 원들에게 각각 군사를 이끌고 대구로 모이라 하였다. 그런데 나라의 운수가 불리하였는지 때마침 큰 비가 며칠을 두고 쏟아져 군사들의 의복과 갑옷이 온통 다 젖어 행군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는데 적병

은 가까와 오고 리 일은 기다려도 와 닿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니 지휘관이 없는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각 고을 원들도 적과 싸울 생각이 거의 없어 서로 돌아 보며

《적병은 저렇게 급히 오고 우리는 군사도 거느리지 못 하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우리 목숨만 위태로울 뿐이요.》 하고 슬금슬금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렇게 된 다음에야 리 일이 말을 달려 충청도 지방에 다달으니 백성들은 늙은이와 어린 것들을 업고 이끌고 피난들을 하고 있었으며 경상도 지경에 이르니 또한 거리와 마을들이 텅텅 비여 길을 물을 수조차 없었다.

리 일은 할 수 없이 문경 고개를 거쳐 상주로 들어 가서 의병을 모았다. 의병들은 하나같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이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적정을 모르고 싸울 용기가 부족한 리 일과 그 부하들은 적과의 첫 번 싸움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형세가 급하게 되자 한 쪽 모를 비집고 리 일이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 칠 때의 날쌔고 용맹한 기세만은 적장들도 경탄케 하였다.

이보다 조금 전에 조정에서는 류 성룡으로 도 체찰사를 삼고 김 응남으로 부사를 삼아 여러 장수들의 전투를 고무하고 보살피게 하였으며 신 립이라는 장수도 그를 도웁게 하여 경상도에서 쳐 올라 오는 적을 막으라고 내려 보내였다.

신 립이 충주 땅에 다달으니 지휘관을 만나지 못한 군사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겨우 8,000여 명의 군사가 령남의 가장 중요한 요재인 문경 새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때 적정을 정탐하고 돌아 온 장수가 보고하기를

《순변사 리 일이 군사를 다 참패를 당하고 자기는 어데론지 도망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 립은 벌써 간이 콩만 해져서 한 사람이 능히 백 놈의 적의 진격을 막아 낼 수가 있는 문경 새재의 험준한 고개를 버리고 충청도 탄금대까지 물러 와서 강을 등지고 진을 쳤다.

부하인 다른 장수들은 신 립의 이런 처사가 못 마땅해서

《이 진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초롱 안에 든 파리와도 같아서 적이 쳐 들어 오면 무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고 간하였다. 이 때 신 립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옛날 옛적에 중국 한 나라 장수 한 신이 적과 싸울 때 큰 강을 등지고 진을 쳤는데 그것을 배수진이라고 불렀다. 뒤에 강이 있으므로 군사들이 도망을 칠래야 칠 수가 없어 죽을 힘을 다하여 적과 싸우게 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군사도 싸움에 익숙하지 못 하여 다 도망을 칠 우려가 있으니 배수진을 쳐야 죽을 땅에 든 것을 알고 힘써 싸울 것이다. 여러 장수들은 겁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라.》

그러나 젊은 장수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래도 곧이 들기지 않았다. 장수가 자기 군사를 저처럼 믿지 못 하고 먼저 죽을 자리에 빠뜨리겠다니 그것은 천만 번 부당한 일 같았다.

《옛날 한 신은 적의 병력이 약한 것을 알고 배수진을 쳤사옵는데 지금 우리는 적이 백만 대병을 이끌고 오니 이런 곳에서 진을 쳐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면 다행한 일이오나 만일 이기지 못 하오면 우리 군사는 다 죽고 말 것이옵니다.》

젊은 장수들이 안타까와서 다시 이렇게 의견을 말하니 신 립은 화를 벌떡 내며 《다시 이 진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시비하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써 대답하리라.》하고 큰 칼로 책상을 쾅 쳤다.

그러니 모든 장수들이 입을 다물 수 밖게 없었다.

바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동쪽으로부터 한 장수가 긴 창을 들고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리 일이였다. 신 립은 반겨 진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두 장수가 긴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없었다. 리 일이 어떻게 되여 참패를 하였다는 경과도 다 듣기 전에 벌써 적의 선봉대가 들이닥쳤다.

왜적의 진격 부대는 두 갈래로 나뉘여 하나는 단월역으로부터 강변을 타고 들어 오고 한 갈래는 산으로 붙었다가 들판으로 퍼져 내려오니 놈들의 기세가 하도 사나워 티끌은 천지에 자욱하고 기'발과 칼끝은 해'살을 가리고 나팔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었다.

그러니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우리 군사들이 어떻게 적을 막아 낼 도리가 있었으랴.

신 립과 리 일이 당황해서 군사를 호령하여 싸우기를 재촉하나 군사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워도 이길 길이 없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두 장수가 직접 나가서 창으로 좌충우돌하여 싸웠으나 수 많은 적병을 당하는 도리가 없어 리 일은 이 번에도 한 모퉁이를 헤치고 달아 나 버리고 신 립은 김 여물과 함께 탄금대 아래에 이르러 수십 명의 적병을 죽인 다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리 일은 동쪽으로 달아 나다가 압구평 부근에서 적의 복병을 만났는데 그 병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러나 도망을 칠 때면 말할 수 없이 용감해지는 장군이라 창을 번개 같이 휘두르니 한 창끝에 왜병의 머리가 두 개씩 떨어졌다. 단꺼번에 적병 40여 명을 죽이고 나니 적의 장수도 달려 들지 못 하거늘 그 틈을 타서 말을 채찍질해서 달아 났다.

그런데 적의 총'소리가 요란히 나더니 리 일이 탔던 말이 또 꺼꾸러졌다.

리 일이 이 번에도 말을 버리고 두 주먹을 쥐고 뛰니 적장이 말갈기를 날리며 뒤따라 오는지라 곧 돌아 서서 긴 창으로 왜장의 가슴을 찔러 떨어뜨리고 그 말을 빼앗아 타고 나는듯이 동으로 향하였다.

그는 제천 고을에 들어 가서 원쑤와의 싸움에서 참패 당한 이야기를 조정에 적어 보내고 원주로 떠나 갔다.

조정에서는 리 일과 신 립 두 장수를 떠내보내고 날에 날마다 적을 물리쳤다는 기쁜 소식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두 장수가 차례로 패전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 하늘이 무너져 앉는듯 하였다.

리 일의 장문의 보고를 읽고 빨리 선전관을 내려 보내여 이 렴치 없는 패군장의 목을 베라는 신하도 있고 경상도 일대의 무능한 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신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였다. 시기는 더 절박하여 적이 벌써 한강 상류에 다달았다는 정보가 왔다.

조정에 가득찬 신하들은 마치 나무로 만든 주머니처럼 입을 열지도, 오무리지도 못 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3)

비장한 분위기 속에 조정에서는 회의가 열



렸다.

김 귀영, 류 성룡, 리 항복 등 중요한 대신들이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도적의 형세가 매우 급하게 쳐 들어 오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평안도로 행차를 하시와 급함을 피하옵소서.》

이 말을 듣자 왕은 소리를 내여 울며

《국내에 기여 든 도적을 막을 자 없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리오.》 하고 탄식하였다.

왕은 조금 있다가 늙은 신하 김 귀영을 불러

《내가 왕 노릇을 잘못하여 이렇게 큰 난리를 만났으니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였다. 내 그대를 잘 알거니와 나의 아들을 보호하여 함경도로 피난을 떠나 힘을 다하여 세자를 보살피리라 믿는다.

천행으로 서로 죽지 않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가 하노라.》

김 귀영도 눈물을 흘리며 곧 세자를 모시고 분명히 서울을 떠나니 울음'소리 장안에 가득하고 참담한 정경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더라.

왕이 또한 길차비를 재촉하여 궁중의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우의정 리 양원으로 수성 대장을 정하고 리 전, 변 언수로 좌우위장, 박 충간으로 순검사를 정하여 서울을 지키게 하고 김 명원으로 도원수를 정하여 한강을 지키게 하고 신 각으로 부원수를 정하여 김 명원을 돕게 하였다.

왕이 서울의 서대문인 돈의문으로 나가니 백성들이 길이 메이게 나와서 가마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전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서 도대체 어데로 가려 하시나이까.》 하고 웨쳤다. 땅을 치며 울어도 울어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았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여 하늘에 사무치도록 백성들은 통곡하는데 그 소리를 헤치며 행차는 총망하게 빠져 나갔다.

장단, 서흥을 지나 개성에 들어 서니 날이 다시 저물었는데 왕은 개성 남대문의 문루 우에 자리를 정하였다.

왕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몰려 들었다.

《왕께서 백성들의 사정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숙원 김씨와 같은 어여쁜 첩년들만 생각하시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숙원 김씨의 손발인 김 공량과 같은 간사한 놈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기에만 전력을 기울였사오니 어찌 국력이 튼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일이 이렇게 되였으니 왜 그 사랑하시던 김 공량으로 하여금 적을 물리치게 하지 않나이까…》

왕이나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시는 할 말이 없었다. 백성의 웨침'소리는 너무도 똑바로 왕과 그 측근자들의 잘못을 밝혀 버렸던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운 때 자기 혼자만 도망을 가는 왕의 소행이 눈끝 사나워 돌을 던지는 사



람까지 있었다. 백성들은 왕을 믿을 것이 못됨을 똑똑히 깨닫고 자기들의 손으로 나라를 지키리라고 다짐하였던 것이다.

왕은 개성에서 백성들의 분노가 두려워서 김 공량을 추천한 리 상해를 파면시키고 류 성룡으로 령의정을 삼았으며 최 흥원으로 좌의정, 윤 두수로 우의정을 삼았다.

초나흗날 왕은 개성을 떠나 금교산을 거쳐 6일에는 안성에 닿았고 봉산, 황주를 지나 8일에는 평양에 들어 가니 평안 감사 송 언신이 성중의 군사를 거느리고 왕을 맞이하였다.

왕이 이렇게 북으로 피난하는 동안 남겨 두고 온 서울은 어떻게 되였는가.

탄금대 싸움에서 신 립이 패배를 당하자 왜적이 충주를 함락시키고 의기 양양하여 서울로 들이 밀었다.

평수장이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넜고 평행장이 또한 대군을 거느리고 룡인읍에 들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 방어의 책임을 맡은 우리 나라 장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편이였다. 평행장의 대군이 한강을 건너 치밀어 오니 도원수 김 명원이 강 어구에서 적을 막아 볼가 하다가 룡인으로부터 올라 오는 적병들이 또 산과 들에 쫙 깔린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서 기'발을 돌이켜 평양 쪽으로 향하여 달렸다.

도적의 무리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한강을 건너 서서 서울을 둘러 싸고 쳐 들어 오니 리 양원, 변 인수 등이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만 보다가 서울을 버리고 황황히 도망을 치고 말았다.

적의 발'길이 나라의 수도를 함부로 짓밟고 련'이어 수원성도 함락이 되여 우리 땅에서 왜놈들이 독판을 치니 짐승의 떼거리가 사람의 집에 들어 와 행패를 하는 셈이라, 이 누구의 죄인가…

(4)

일본 장수 청정이 평행장과 함께 서울에 들어 앉아 일본국으로 사람을 띄워 전과를 보고하고 군사를 더 많이 보내 줄 것을 요청하니 평 수길이 크게 기뻐하여 안 군사, 평 성정 두 장수에게 각각 군사 십만씩을 거느리고 조선에 건너 가 싸움을 도우라고 하였다.

이 새로 온 왜놈의 군사들이 평 행장, 청정의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과 시골 이르는 곳마다에서 갖은 포악하고 무도한 짓을 다 하니 승냥이의 발톱에 할퀸 것처럼 산과 들에서도 피가 흘렀다.

놈들이 서울 안에서 갖은 행악을 다한 다음 다시 말머리를 북으로 돌리며 청정이 다른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우리들이 북으로 올라 가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으면 마다시, 신안도 두 장수가 수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올 것이다. 그 때 남쪽, 북쪽에서 힘을 합쳐 치면 조선 왕은 반드시 함경도로 피해 갈 것이니 그 전에 내가 함경도에 가 기다리고 있다가 왕의 앞길을 막을 터이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모질고 극성스럽게 싸우자.》

적병은 서울을 더럽힌 발'길로 관서와 관북 땅을 바라며 질풍 같이 치밀었다.

놈들에게는 하루 바삐 평양성을 함몰시키는 것이 가장 급한 일로 되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형세를 살피고 좌의정 윤 두수, 참판 리 항복 등이 왕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적의 장수 평행장이 대군을 거느리고 모화관을 넘어 평안도로 향하고 있사오니 빨리 장수를 보내여 적의 앞길을 막아야 하겠나이다.》

왕도 그들의 의견에 좇아 곧 남병사 신 길로 통어사를 정하여 김 명원과 함께 림진강을 지키게 하고 지사 한 응인에게 평안도 군사 5,000 명을 주어 신 길의 후방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통어사 신 길은 싸움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 하면서 매우 거만하고 아래'사람의 말은 영 듣지 않는 딱한 장군이였다.

그가 김 명원과 함께 림진강에 다달아 배를 전부 몰아다가 강 언덕에 매고 강변에 방패를 세우고 일자로 길게 진을 치고 북과 나팔을 울리며 위세를 부렸다. 그의 뒤를 따라 김 명원도 좌우로 진을 치고 적을 대기하였다.

적의 선봉장 소서비가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림진강에 와 보니 배가 한 척도 없는지라 건느지 못 하고 강 저 편 언덕에서 군사들을 시켜 우리 편에게 더러운 욕과 짐승 같은 행동을 해 보이게 하였다.

이 꼴을 보고 있던 별장 류 극량이 방패에 의지하여 긴 활에 편전이라는 긴 화살을 먹여 쏘니 바람'결을 타고 강을 건너 간 화살이 욕설을 하고 있는 적의 아가리에도 꽂히고 눈'구멍에도 박혀 산'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

류 극량의 두 눈에는 더욱 노기가 불타 올라 강토를 짓밟히는 억울한 심정을 담아 활'줄을 당기니 그의 화살은 백발 백중이였다.

앞에서 떠벌리며 웨치던 놈들이 차례로 거꾸러지는 것을 보자 소서비도 다급하여 곧 저희들의 군막을 불살라 버리고 물러 갔다.

류 극량은 백성들 속에서 자라 난 오랜 군인으로 나라 일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평안도 일대 농민들 속에서 스스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자진하여 림진강 방어에 나선 것이다. 마침 신 길이 통어사가 되여 나오니 고렵하여 싸움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그의 부하가 되였다.

그런데 신 길은 답답하게도 싸움하는 법의 첫 걸음도 모르는 위인이였다.

일본 군사는 뒤로 물러 가서 수십일 동안이나 군막의 문을 굳게 닫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무슨 꾀를 내였는지 제 손으로 제 군막을 다시 불을 지르고 도망을 하는 척 하면서 슬금슬금 십여 리나 물러 나갔다. 그러면서 요소마다에 복병을 묻어 두고

《오늘 밤쯤 조선 군사가 올 터이니 반드시 쳐서 이겨야 한다.》고 명졸들에게 알렸다.

이러한 적정을 살핀 통어사 신 길은 주먹을 높이 들며

《적병이 내 위세에 기가 질려 도망을 하는구나. 오늘 밤에 강을 건너 가서 놈들의 뒤를 추격하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류 극량이 생각다 못 해 앞으로 나서며

《적들은 몹시 간악하고 영리합니다. 저 놈들이 까닭 없이 저렇게 도망을 치는 뒤에는 반드시 무슨 흉칙한 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태로운 일은 서둘러 하지 마옵소서. 우선 우리 진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정면에서 적을 제압하고 있으면 적들이 반드시 강을 건느기 위하여 다시 기여 들 터이니 그 때 사세에 알맞게 강한 타격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군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옵소서.》

하고 하나하나 리치를 따져 말하였다.

그러나 이 지당한 말을 받아 들이기는 고사하고 신 길은 큰 소리로 류 극량을 꾸짖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자가 적에게 죽는 것이 그리 두려우냐. 만일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이 칼로 목을 베리라.》

결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방어선을 이루고 있는 이 림진강 싸움에서 지는 것이 두려웠다. 적이 다시 북쪽으로 기여 들 것이 두려웠다. 이러한 류 극량의 가슴 아픔을 어이 글로 기록하랴!

류 극량은 두 말 없이 물러 나와 군사들의 무장을 점검하고 자기도 큰 칼과 활을 멘 다음 방어사 신 길을 따라 강을 건넜다. 강 우의 밤 바람은 스산하였다.

한 응인, 김 명원에게 본 진을 맡기고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적을 추격하러 떠난 신 길은 강을 건너 삼십 리쯤 가서 곧 적의 매복에 걸렸다.

문득 총'소리 한 방이 밤 공기를 요란히 흔들더니 수천 개의 홰'불이 일시에 일어 나고 북소리와 함성에 싸여 적병이 벌떼 같이 쳐 들어 오는데 신 길 따위로는 어떻게 감당하는 도리가 없었다.

그 때사 당황 망조하여 다시 림진강 쪽으로 군사를 끌고 돌아 오는 도중에 왜장 평의지가 불쑥 나타나 군사를 몰아 엄습하니 우리 군사는 강'기슭까지도 갈 도리가 없었다.

류 극량이 사세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는

《내 처음에 이럴 줄 알고 말렸더니…아, 그러나 뉘를 원망하리오. 어떤 역경에서나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고 입술을 지긋이 다물며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반격하기 시작하였다.

《나라에 충성을 다짐한 조선 사람들이여, 뼈가 가루가 되여도 싸우자!

간악한 원쑤를 무찌르면 죽어도 사는 것이다.》

군사들은 류 극량의 이 불 같은 웨침 소리에 힘을 얻어 어둠을 무릅쓰고 적과 대항하였다. 칼과 창이 부딪는 소리 세차게 일어 났다. 적은 수 많이 쓰러졌다.

그러나 차츰 날이 밝아 오자 정세는 점점 불리하였다. 앞뒤로 포위된 우리 군사는 적의 총탄과 화살에 넘어졌다.

류 극량은 말을 버리고 활을 들고는 산 벼랑에 의지하여 쏘니 한 화살에 적병이 두서너 놈씩 맞아 죽는지라 혼자서 백여 명을 쓸어 눕히고 나니 정통에 화살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옮기지도 않고 그 부근에 쓰러져 죽은 적병들의 화살을 뽑아 모아서는 다시 쏘고 또 쏘았다. 적의 시체는 그 앞에 무더기로 쌓였다.

이렇게 얼마를 싸우니 이 번에는 활'줄이 끊어졌다. 할 수 없이 활을 버리고 돌팔매로 적을 쳐눕히지 않을 수 없었다.

개미떼와도 같이 적병은 끝없이 밀려 들었다. 그는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깨달았다.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보며

《내 어찌 도적의 손에 죽으리오.》 하고 웨친 다음 스스로 비장하게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

림진강 싸움에서 졌다는 소식이 평양에 올라 오자 왕을 비롯한 온 조정의 락심과 비탄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림진강을 건너 선 왜적들은 금천, 평산, 서흥, 황주를 무인 지경 같이 지나 중화에 들이닥치니 중화에서 평양성은 바로 지척이라 사납게 일어 나는 길 먼지가 평양성 우에서 바라 보였다.

놈들은 선봉 부대를 보내여 대동강 바로 건너 장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니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 끝을 서로 겨누었다.

류 성룡이 군사들을 시켜 급히 배를 모아와 강 이 쪽에 잡아 매니 적들이 건너 올 수는 없고 강'가에 와서 총을 쏘며 야로를 부리기만 일삼았다. 대동문을 굳게 닫아 걸고 성 우에 엎드려서 우리 군사들이 성 구멍으로 화살을 날려 보내니 놈들도 난처한 형편에 빠져 당황하였다.

평양 백성들은 가장 용감하고 대담하였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도가니처럼 들끓으며 서로 굳게 뭉쳤다.

농사'군은 낫과 쇠스랑을 들고 나무'군은 도끼를 들고 부인네와 아이들까지도 식칼을 휘둘으며 적을 막아 나설 다짐을 하였다.

나라의 반만 년 력사와 팔도 인민들의 안위를 어깨에 지고 평양을 사수하며 대동강을 적들의 무덤터로 만들며 오랑캐를 물리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들었다.

백성들의 기세가 이렇게 높아 갈 때 조정에서는 딴판으로 도망 갈 궁궁이만 꾸미고 있었다.

《이제 적병이 성 밖에 다달아 주야로 우리를 엿보고 있사오니 미구에 강을 건너 접탈하여 올 것이옵니다. 청컨대 전하께옵서는 의주로 피난하시와 옥체를 편히 하옵소서.》

비겁한 신하들의 이러한 말에 왕도 머리를 끄덕이며 곧 길 차비를 서둘렀다. 궁중의 계집들과 심부름'군들과 그 밖의 척근자들은 보따리를 꾸리기에 눈코를 뜰 사이가 없었다.

평양성은 좌의정 윤 두수와 김 명원, 리 원익 등에게 힘 닿는 대로 지키라고 밀어 맡겼다.

왕의 행차가 보통문을 빠져서 북으로 향하려고 하니 평양 백성들은 철통 같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청년들은 땅을 치며 웨치고 늙은이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부비며 하소연하였다.

《나라도, 백성도 없으면 왕인들 그 어데 있사오리까. 적을 피할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것이옵니다.》

백성들의 웨치는 소리는 너무도 옳고 힘차서 한 마디의 대답도 찾아 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비겁한 조정과 왕의 행차는 어떻게든지 여기를 떠나야 하였다. 앞을 가로막은 백성들을 덜치고 길을 열어야 하였다.

관부사 로 직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왕의 행차가 오래 머물을 수가 없으니 어서 비켜 나라고 호령을 하였다.

이 말은 백성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네 대신으로 있다는 놈이 왕을 섬기되 충성을 다하여 국토와 사직을 보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저버리고 빨리 달아 나도록 왕을 충동이니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왕을 모시고 어데로 갈 작정이냐!》 하고 꾸짖으며 한 젊은이가 로 직을 말에서 끄집어 내렸다. 몽둥이가 로 직의 머리며 어깨에 사정 없이 내려졌다.

이 때 평안 감사 송 언신이 날랜 장교들을 끌고 들어 와서 앞장 서 말하는 백성들을 잡아 내여 처단을 하니 모인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헤여졌다. 그 틈을 타서 왕의 행차는 평양성을 빠져 달아 났다.

다음 호에 계속

변절자의 말로

—장편 소설 《청년 전위》를 중심으로—

김 헌 순

공개된 계급적 원쑤보다 가장된 원쑤—반역자들이 더욱 악랄하고 더욱 해독적이라는 것은 투쟁의 력사가 말해 주는 심각한 교훈의 하나이다.

장편 소설 《청년 전위》(상, 하)의 격동적인 화폭들은 이 진리와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준다.

작품에는 혁명의 변절자—반역자의 저주로운 형상이 무리로 등장하고 있다. 일제에게 매수되여 《구국단》을 조직하며 반공산주의 선전의 더러운 미끼가 된 김 태연, 김 병섭, 개인의 공명과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 일제의 장단에 맞추어 《민생단》 감투를 휘두르고 혁명 대렬을 안으로부터 좀먹으려고 날뛰는 《외눈깔 왕개》—김 성도, 리 신준, 송 로률 등 종파 분자들, 자기의 더러운 한 목숨을 건지려고 원쑤들 앞에 무릎을 꿇고 변절을 맹세하며 드디여는 혁명가로 가장한 밀정으로, 피묻은 교형리로 전락하는 김 중빈, 최 봉문, 리 성환…이 모든 인간 쓰레기들의 형상을 더듬어 가는 우리들은 혁명의 간고성과 준엄성에 대하여, 계급적 원쑤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역자, 변절자—그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칭호의 하나이다. 여북하면 그들을 두고 인간 이하의 《개》로 불러 왔겠는가!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서 계급을 초월할 수 없다. 계급 투쟁이 첨예한 시기, 혁명이 성숙된 준엄한 시기에는 더구나 그러하다. 인류의 미래이고 영원한 청춘인 공산주의 리상을 위하여, 민족의 운명과 인민의 참된 미래를 위하여 가장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투사적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에 직면한 극악한 반동 착취 계급의 편에 서서 그들의 발악적인 죄악과 범죄 행위를 도와 나서는 천추에 씻지 못할 치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두 길 중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길인가를 걷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제 3》의 그 어떤 길이란 있어 본 일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반역자들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은 자들이였던가? 이에 대한 회답을 우리는 《청년 전위》에 등장하는 뭇 변절자, 반역자의 형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특히 반역자 김 중빈의 형상과 그 운명은 변절자—반역자의 계급적 정체가 어떠하며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본질을 지니였는가를 명백히 말해 주고 있다.

중학 시절부터 부화 방탕한 길에 들어 섰던 그는 부농이며 수전노였던 아버지의 눈 밖에 나는 바람에 오락가락 류랑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때는 재산툰 탄광에서 품도 팔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무렵 동만 일대에는 사회주의 사상 조류가 물밀듯이 흘러 들어 왔다. 학생 시절에 이미 사회주의자로 자칭한 일도 있었던 김 중빈은 드디여 행세식 맑스주의자로 등장하였고 모든 기회와 환경을 자기의 개인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노리였다. 그리하여 그는 몇 개월 간의 로동 경험을 방패로 공청 조직에 기여 들었고 교활한 모험과 좌익적인 언사를 엄페물로 하여 공산당에 입당하고 당 내에서 책임적인 위치에로 기여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중빈은 처음부터 출세와 명예를 탐내여 투쟁 대렬에 들어 섰던 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도, 진정한 계급적

자각도 있을 리 없었으며 짓밟힌 조국의 운명이나 인민들의 처참한 생활도 아랑곳 없었다.

그 만큼 그는 처음부터 변절과 반역의 요소를 가지고 혁명 대오에 기여 든 교활한 기회주의 분자이기도 하였다. 일제에게 체포되여 한 번의 위협과 공갈에 부닥치게 된 그가 꺼리낌 없이 원쑤들 편에 넘어 서서 《충성》을 맹세한 주구 밀정으로 전락한 그 길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변절자로 타락한 김 중빈이 그 후 어떤 죄악적인 책동과 음모 술책을 감행하였던가?

그는 뻔뻔스럽게 투사로 가장하여 투사들이 감금되여 있던 감방에 기여 들어 혁명의 비밀을 냄새 맡으려는 비렬하고 간교한 책동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룡구 공청 책임 서기인 허일심을 체포하려는 일제 밀정들의 앞장에 나서서는 《혁명 동지》로 가장하여 투사의 안해를 속아 넘기려는 간악한 음모를 꾸며 내기도 한다. 투사인 박 파에게 그 정체가 탈로되여 죽음을 당하려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 난 그는 마침내 공개적인 일제 앞잡이로 등장하여 《협조대 오지 공작대》부대장의 감투를 뒤집어 쓰고 놈들의 반공산주의 선전과 유격대 토벌에 발벗고 나선다.

이러한 타락과 변절의 길은 비단 김 중빈뿐만 아니라 다른 일련의 반역자의 경우에도 결코 례외가 아니였다. 상투쟁이 농촌 훈장물림으로 3.1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그 후로는 《화요파》와 《엠엘파》를 넘나들면서 파벌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마침내 일제가 조작한 《민생단》 놀음의 《개》가 된 종파 분자 리 신준이나 아버지의 물지게 품으로 공부를 해서 중학교 교원까지 지나면서 자신을 로동 계급 출신으로, 《프로 인테리》로 자처하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으나 일제 교형리들의 간교한 꾀임과 《대접》으로 인차 개인의 행복과 안락이 있은 다음에야 혁명이나 투쟁이 있다고 떠벌리게 되는 리 성환 따위는 애당초부터도 공산주의 투사—혁명가와는 먼 거리에 있는 인간들이였다.

정치 사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도덕—륜리적으로도 타락을 면치 못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기도 하다. 반역자들은 례외 없이 인간이 지녀야 할 초보적인 도덕적 면모도 지니지 못한 사람 아닌 짐승들이였다. 탈을 쓰고 행동하면서 혁명을 좀먹으며 날뛰였으니 만큼 허위와 기만, 날조와 음모는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 하나의 고질로 되였으며 자기의 《공로》와 《명예》를 위해서는 그 어떤 범죄적인 술책과 그 실천도 서슴지 않는 그 잔인성과 포악성, 비렬성과 파렴치성, 밑바닥까지 부화 타락하고 변질한 도덕적 면모 등은 그들에게서 뗄 수 없는 인간적 방향으로 되였다.

작품 상권 9 장에 등장하는 종파 분자들의 추악한 면모들만이라도 상기하라! 반《민생단》투쟁을 저들의 종파적 목적에 악용하여 일대 공포 선풍을 일으키며 동지들끼리 서로 믿지 못 하게 음모와 모략, 중상과 리간만을 일삼던 그들에게서 과연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찾아 볼 수 있단 말인가? 진실한 공산당원, 혁명 투사들을 까닭 없이 체포, 구금, 고문, 학살하는 한편 련일 닭을 튀기고 돼지를 잡아 주연을 베풀면서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마감에는 녀 당원인 남 신애까지 겁탈하려 들며 뜻을 이루지 못 하게 되자 소위 《위신》을 위해서 그를 없애 치울 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김 중빈의 타락한 도덕적 면모는 또 어떠하였던가. 연길에 둥지를 틀고 앉은 일제 밀정들의 소굴에 파묻혀 있던 그는 촌수는 없지만 서로 오랍누이로 부르며 지내는 금숙이에 눈독을 드린다. 그의 오빠를 일제에게 밀고하여 학살케 한 데다가 이 번에는 철면피하게도 나어린 누이동생 맞잡이인 금숙에게 군침을 삼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추악하고 뻔뻔스러운 몰골인가!

참된 혁명 투사들이 바로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재생을 위하여 피흘려 싸우던 그처럼 준엄한 혁명 투쟁의 환경에서 그들 변절자 도당은 바로 이처럼 더러운 면모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 비추어 혁명의 편에서 원쑤들의 편으로 넘나드는 변절자는 민족적, 계급적 배반을 서슴지 않는 극악한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원쑤들이 던져 주는 밥덩이에 매달리여 투사적 량심과 지조는커녕 인간의 초보적인 면모조차도 상실한 정치 도덕적 타락 분자, 탐욕 분자이며 착취자, 략탈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더러운 《개》가 되여 혁명을 저해해 보려고 날뛰는 혁명 대렬의 가장 악랄한 파괴 분자, 해독 분자이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인민들의 꺾을 수 없는 힘 앞에서 그들이 과연 자기의 추악하기 그지 없는 정체를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들은 어느 때고 자기의 정체를 교활하게 은폐하고 합리화하려 갖은 책동을 다한다.

한 변절자의 지껄임만이라도 들어 보자!

《그런데 왜놈들과 정면 충돌만 계속한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명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요. 죽은 다음이야 무슨 혁명이나 독립이 있겠소. 송장 우에 공산주의라는 장미꽃이 필 리야 만무한 일이 아니요. 사람이란 생사 존망의 위기에는 응당 림기 응변으로 처세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오. 지금은 리성적으로 살아야 할 때오. 맑스주의자들은 응당 진공할 때는 진공하지만 혁명의 퇴조기에는 준비 있게 후퇴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오. 뿐만 아니라 강적과 대처했을 경우에는 혁명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과 림시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요…》

이 얼마나 너절하고 간사한 《생명 철학》의 교활한 궤변인가. 이 지껄임 속에 무엇이 박혀 있는가? 썩어 빠진 부르죠아 사상—개인리기주의의 독소, 혁명적인 언사 속에 교묘히 감추어진 반역적 론법, 필요하다면 맑스주의 진수까지도 서슴없이 외곡하려 드는 배신자의 《론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상 도덕적 본질로 해서 그들은 일단 원쑤들 편으로 넘어 가기만 하면 그들 《상전》보다 몇 배나 더 악랄하고 간교해지며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집요하고 비렬하고 철면피한 음모 책동까지도 서슴지 않는 본성을 지니기도 한다.

한 번 변절과 반역의 길에 들어 서기만 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기울어져 가는 《상전》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분노한 인민들의 힘 앞에서 더러운 목숨을 건져 보려 마지막 발악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진리의 길, 인민의 위대한 힘을 배반한 이들 반역자들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가?

죽음! 파멸! 인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 하거나 혹은 다름 아닌 그들의 상전인 원쑤들의 손에 의하여 파멸을 당하고 마는 길, 이것이 바로 반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는 운명이다.

모든 반역자들의 더러운 말로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진리와 정의를 뒤엎거나 가리울 수 없다. 일련의 반역자들은 이미 《청년 전위》 상권에서 제가끔 그 정체가 드러나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하거나 근근히 목숨을 유지해 가는 김 중빈, 최 봉문, 리 성환 등 반역자들도 하권의 사건 발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일제의 《은덕》으로 주구 밀정들의 소굴인 《협화회》 간부요, 《협조대 오지 공작대》의 대장이요, 고문이요 따위의 감투를 뒤집어 쓴 그들은 유격대 《토벌》의 앞장에 서기도 하며 일제의 반공 선전의 《꼭두각시》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발악을 다 하더라도 멸망에 직면한 《상전》들의 운명이 그들 반역자들의 앞길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이 세 반역자들은 《당신들이 공을 세우면 일생을 국록으로 살며 부귀와 영달의 행복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상전 이누가이의 《고무》를 받으면서도 긴 한숨을 몰아 쉬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하당》 조직에 실패한 탓으로 상전한테 귀쌈을 얻어 맞고는 눈앞이 더욱 캄캄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마저 마침내 죽음의 심판을 받고 만다. 반역자 리 성환의 말로는 더우기 추악하고 보잘 것 없다. 렬차 습격 전투에서 유격대에게 붙들린 그는 구사 일생으로 도망쳐 나오기는 하였으나 허허 벌판에서 넋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 달려 드는 까마귀 떼에게 눈깔을 파먹히워 외눈깔이 되였고 상전의 강요와 협박에 견디다 못해 유격대의 기밀을 탐지하려 나섰다가 드디여는 이리떼의 더러운 밥이 되고 말았다. 대하와 같이 도도히 흐르는 인민들의 혁명적 전진을 거슬려 살아 볼려는 더러운 목숨의 마지막 운명을 여기에서도 본다.

그들에게 밥덩이를 던져 주던 바로 그 상전의 손에 의하여 더러운 죽음을 당하고 마는 반역자의 운명은 또한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김 태연이나 김 병섭 같은 반역자들은 오직 일제 상전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그 지시를 따라 《구국단》을 조직하고 녀자까지 접탈하는 등의 갖은 충성과 열성을 다 보였다. 그러나 일제는 반공 선전의 《연극》이 폭로될 위험이 보이자 《충실한》 주구들을 제 손으로 서슴없이 없애 치우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생활의 론리이기도 하다. 원쑤들에게 있어서 반역자들이란 자기의 계급적 리익을 위한 하나의 리용물에 지나지 않는 만큼 쓸모가 없어지거나 그 존재가 거치장스러운 방해물로 될 때 하나의 물건 짝을 없애 치우듯 처치해 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청년 전위》가 보여 주는 반역자, 변절자들의 저주로운 본질과 그 추악한 말로를 두고 우리들은 우리 혁명의 간고하던 지난날과 오늘, 그리고 래일에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의 길은 준엄하며 원쑤들은 간교하고 집요하다. 우리 혁명의 지난날은 공개된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의 길이였던 동시에 투쟁 대렬에 기여 든 숨은 원쑤—반역자, 변절자들을 적발 소탕한 치렬한 싸움의 길이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해방 전후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 과정에서 혁명의 변절자,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얼마나 간악하고 집요하였는가도 잘 알고 있다.

혁명 투쟁의 력사와 경험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깡그리 소멸되지 않는 한 계급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 투쟁 로정에서 계급적 원쑤들의 《끄나풀》인 혁명가의 탈을 쓴 원쑤—변절자, 반역자의 책동도 더욱 교활하고 더욱 악랄해지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문제는 우리들이 당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들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전투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 경각성을 늦추지 말며 원쑤들의, 반역자들의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모략 책동에 대해서도 제때에 적발 분쇄하고야 말 빈틈 없는 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

《인민의 원쑤, 혁명의 반역자들의 죄행과 그 본질을 똑똑히 재겨 두자! 그리고 그들을 쳐 없애기 위해 무자비하게 싸워 나가자!》

이것은 장편 소설 《청년 전위》가 우리를 깨우쳐 주는 또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고 교훈이다.

남조선 앞뒤 골목

돈 주고 사는 《교육감》

괴뢰 국회 문교 공보 위원회라는 데서 새여 나온 소식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3만 원에서 5만원만 주면 누구든지 어마어마한 《교육감》(시학 또는 교학) 감투를 뒤집어 쓸 수 있으며 《교육감》 임명 문제가 제기되면 의례 군청이나 도청 직원을 끼고 돈 보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착실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구멍 뚫린》 현재의 《교육 위원회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공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교육 위원회 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런 자들 즉 돈 주고 선출된 자들에 의해 꾸며졌으니 어찌하랴.

매관 매직은 구더기에 쉬파리 따라 다니듯 남조선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법》 조문이나 한두 군데 뜯어 고친다고 그러한 병'집이 고쳐질 리 있을가?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론법에 따른다면 《교육 위원회 법》 정도가 아니라 《국회법》이나 《정부 조직 법》도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할 판인데 왜냐 하면 《국회》나 《정부》 안에 들어 가 있는 자들도 모두가 지독한 렵관배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법》도 여러 번 뜯어 고치고 《국회》나 《정부》도 여러 번 바뀌였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니 이제는 공담도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전기와 우리 생활

전력의 합리적 리용과 절약 (4)

리 규설

전력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다.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급속히 증대되는 전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의 증산과 함께 절약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년간을 통하여 소비되는 전력의 1 %만 절약한다면 추가적 투자 없이 금강산 발전소의 출력보다 더 큰 발전소를 하나 건설한 것과 같아진다. 이와 같이 전력을 절약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매년 적어도 30억 KW시 이상의 전력을 절약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적극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전력의 도중 손실의 감소

긴 수로를 통하여 논과 밭에 물을 댈 때 저수지나 양수장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도중에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해서 그 일부가 류실되게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도 이와 같이 선로와 변압기를 거쳐 공급되는 과정에 전기 저항에 의하여 일부가 열로 되여 헛되게 없어진다.

그러므로 전기 절약에서 중요한 것은 도중 손실을 극력 감소시키는 것이다. 전력의 도중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압 단계를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표준 전압에는 전등 용 110, 220 V로부터 고압 송전압 220 KV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전압 단계를 제고시킨다는 것은 이런 표준 전압 즉 110 V를 220 V로 높이는 등 전압을 한 계단씩 높이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에는 되도록 전압을 높여 흐르는 전류의 량을 작게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전력의 손실은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흐르는 전류의 차이가 적다 하더라도 전력의 손실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례를 들면 흐르는 전류의 량이 2 배, 3 배 많아지면 전력의 손실은 2 배, 3 배인 것이 아니라 4 배, 9 배로 커지며 반대로 $\frac{1}{2}$, $\frac{1}{3}$ 로 감소되면 전력 손실은 $\frac{1}{4}$, $\frac{1}{9}$ 로 감소되게 되는 것이다.

전압 단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등 전압을 110 V로부터 220 V로, 전동기 전압을 220 V로부터 380 V로, 배전선 전압을 3 KV로부터 6 KV 및 10 KV로 높여야 한다.

다음 전력의 도중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력률이란 전선에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전류를 보내야 하므로 전력 손실은 커진다. 또한 전압도 떨어지므로 전기 설비들의 리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무효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유도 (비동기) 전동기를 비롯하여 변압기 등의 운전 상태를 개선하여 무효 전력의 소비를 극력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큰 전동기들은 될수록 무효 전력을 생산하는 전동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음 동기 조상기, 정전 축전기 등을 설치하여 무효 전력을 적극 생산하여야 한다.

2. 제품 생산에서 전력의 절약

제품 생산에서 제품 단위 당 전력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전력을 많이 쓰는 공정을 전력을 적게 쓰는 새로운 생산 공정으로 개편하는 것은 전력 절약의 주요한 예비의 하나로 된다.

제품 단위당 전력 소비량이란 일정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량을 그 제품의 생산량으로 나눈 것 즉 개별적 단위 제품 생산에 소비된 전력의 량을 말한다.

례를 들면 카바이트 2만 톤을 생산하는 데 전력을 6천만 Kw시 사용했다면 카바이트 1 t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전력은 3천 KW시로 될 것이다.

제품 단위당 전력 소비량에는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소비 전력, 각 직장들에서의 보조적인 소비 전력, 기업소 생산 활동을 위한 경영적 소비 전력 등이 속한다.

그러므로 제품 단위당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생산 공정에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의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만큼 전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례를 들면 현재 우리 나라 전기 제강로, 주강로, 소성로, 가열로 등에서 일부 설비들을 개선하고 열 관리를 잘 하여 그의 리용률을 5%만 높인다면 금강산 발전소가 반 년 간 생산하는 량의 전력을 얻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 동력으로 되고 있는 전동기나 기타 전기 기계들을 운전할 때 설비들을 잘 관리하여 기계적 손실을 극력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 부문들과 경영적 소비 부문에서의 전력 소비를 극력 감소시켜야 한다.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 생산 공정을 전력을 적게 쓰는 생산 공정으로 개편하는 것은 공업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기본 방도로 된다.

실례로 화학 공업 부문에서 현존 암모니야 생산을 물 전해에 의한 암모니아의 합성 방법으로가 아니라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한다면 1 년에 적어도 8억 Kw시 이상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 전기로에 의한 카바이트의 생산을 산소 열법으로 개편하고 제강 행정에 산소를 광범히 리용하며 산소 전로 제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등 전력을 많이 쓰는 공정을 적게 쓰는 공정으로 일부 개편하고 앞으로 건설하는 대상들에 새로운 공정을 도입한다면 7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우리 나라 현존 발전 능력의 약 35% 이상되는 막대한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3. 일반 동력과 전등 부문에서의 전력 절약

이 부문에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려면 부하률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부하률이란 전력 소비에서 파동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된다.

$$\text{부하률} = \frac{\text{일정한 기간에 쓴 평균 전력}}{\text{일정한 기간에 쓴 최대 전력}} \times 100\ (\%)$$

만일 1 주야 동안에 전력을 계속 꼭 같이 썼다면 최대 부하와 평균 부하가 같으므로 일간 부하률은 100%로 된다. 그러나 생산에서 파동성을 가져 올 때에는 부하률이 낮아짐으로써 전력 설비의 리용률이 낮아지며 전력 손실이 증가되게 된다.

부하률을 높이자면 우선 생산 조직을 잘 하여 생산에서 파동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농촌 같은 데서는 전등과 동력 부하를 될수록 동시에 쓰지 말아야 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설비 보수는 가능하면 농촌에서 관개 양수 동력이 증가되는 때를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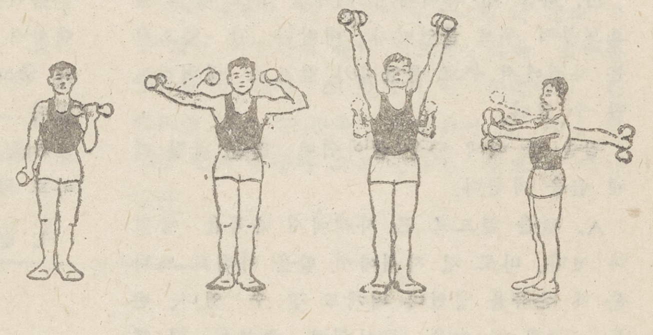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및 변압기의 공운전과 경부하 운전을 없애야 한다. 이것은 적지 않은 전력을 랑비하게 하는바 례를 들면 10 Kw의 전동기를 공운전할 때에는 약 500 w의 전력이 손실된다.

전력 절약에서 홀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등 부하의 절약이다. 전등 전력은 한 개씩 놓고 볼 때에는 그 량이 적다고 할지라도 전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막대한 것이다.

례를 들면 평양시 내 매 가정들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만 전력을 절약한다면 5만 메터의 천을 짤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전등 사용에서 전력을 절약하자면 불필요한 시간에 제때에 전등을 끄는 한편 높은 촉수의 전등을 낮은 촉수의 전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등에 반드시 갓을 씌워야 한다. 전등 갓을 씌웠을 때에는 그의 경사각에 따라 갓을 씌우지 않았을 때보다 2 배, 4 배, 7 배, 15 배 등으로 더 밝아질 수 있다. 만일 반사각을 15°까지 좁히면 빛은 200 배나 밝아진다.

신체 단련과 아령 운동





아령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기구로 충분히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

아령 운동은 근육을 충분히 발달하게 한다. 이와 함께 폐와 심장의 기능을 높여 주며 피가 온 몸을 잘 돌게 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몸을 튼튼하게 해 준다.

그런데 아령 운동에서 꼭 지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아령 운동은 체계적으로 늘 끊는 일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운동의 세기를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아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무거운 것을 쓰며 운동을 반복하는 회수도 점차 늘여야 한다. 일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하면 도리여 건강에 해롭다. 아령 운동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하면서 몸에 맞게 해야 하며 운동 도중에 숨쉬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아령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이 좋다. 아령의 무게가 무겁다고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운동의 효과는 아령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아령 운동을 처음으로 하는 청년들에게는 1~3 키로 그람 정도의 아령이 적당하다.

그러면 아령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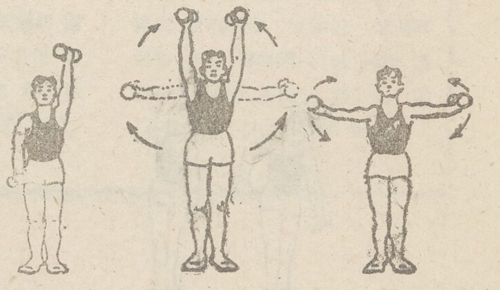
ㄱ.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아령을 잡고 한 팔씩 교대로 굽혔다 편다.

ㄴ. 팔을 옆으로 든 자세에서 손'바닥이 우로 향하게 아령을 잡고 한 팔씩 번갈아서 굽혔다 폈다 한다.

ㄷ. 손을 어깨에 올린 자세에서 두 팔을 동시에 우로 폈다가 내린다(한 팔씩 할 수도 있다). 팔을 우로 펼 때에는 머리 뒤로 힘을 주면서 숨을 들이쉬며 팔을 내릴 때에 내쉰다.

ㄹ. 팔을 앞으로 든 자세에서 옆으로 벌린다(한 팔씩 할 수도 있다). 팔을 옆으로 벌릴 때에는 팔에 힘을 주면서 숨을 들이쉬며 팔을 앞으로 모을 때에는 숨을 내쉰다.

ㅁ. 바로 선 자세에서 (혹은 누워서도 할 수 있다). 아령을 잡고 한 팔을 앞으로 들었다가 내리며 다음 반대 팔을 들었다가 내린다. 팔을 앞과 우로 들어 흔들 때에는 숨을 들이쉬며 팔을 내릴 때에는 숨을 내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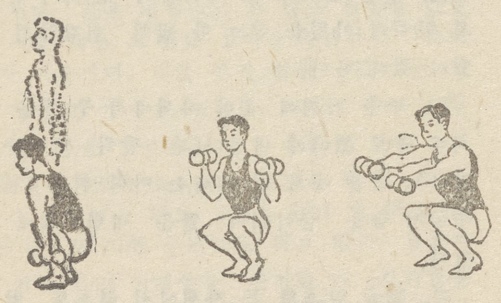


ㅂ. 바로 선 자세에서 아령을 잡고 팔을 옆으로부터 우로 들었다가 내린다. 팔 옆으로 든 자세에서 우로 들었다가 옆으로 내리게도 할 수 있다.

팔을 들 때에 숨을 들이쉬며 팔을 내릴 때에 숨을 내쉰다.

ㅅ. 팔을 옆으로 든 자세에서 손목을 굽혔다 편다. 바로 선 자세에서 팔을 아래로 드리운 채 손목을 굽혔다 펴게도 할 수 있다. 손목을 굽힐 때 숨을 들이쉬며 손목을 펼 때 숨을 내쉰다.

2. 다리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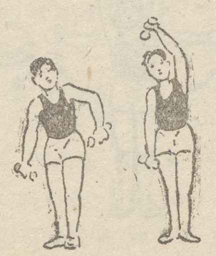


ㄱ.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팔을 아래로 드리운 채 다리를 깊이 굽혔다 편다.

ㄴ. 손을 어깨에 올리고 또는 팔을 앞으로 들고 다리를 굽혔다 편다.

다리를 굽힐 때 숨을 들이쉬며 다리를 펼 때 숨을 내쉰다. 이 운동은 발굼치를 높이 들고 다리를 굽혔다 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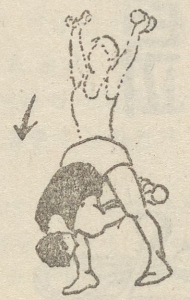
3. 옆구리 운동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손을 저드랑이 아래까지 스쳐 올리면서 굽혔다 편다. 한 팔 우로 들고 몸을 옆으로 굽혔다 펴게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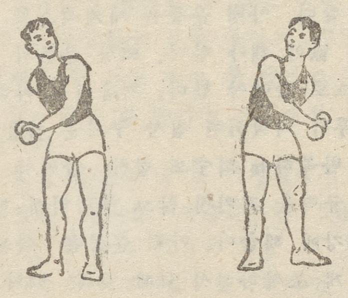
몸을 옆으로 굽힐 때 숨을 들이쉬며 몸을 바로 펼 때 숨을 내쉰다.

4. 등 운동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팔을 우로 들었다가 다리 사이로 팔을 넣으면서 몸을 앞으로 굽혔다 편다. 팔을 들 때 숨을 들이쉬고 몸을 굽힐 때 숨을 내쉰다.

5. 몸통 운동



다리를 벌려 선 자세에서 오른 팔은 왼 쪽으로, 왼 팔은 뒤 오른 쪽으로 힘 주어 돌리며 몸을 옆으로 돌린다. 몸을 돌릴 때 숨을 들이쉬며 바로 할 때 숨을 내쉰다.

6. 숨쉬기 운동

아령 쥔 손을 허리에 올리고 바로 선 자세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여 가슴을 넓힌 다음 숨을 내쉬면서 배를 내보낸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배를 내보내고 숨을 내쉴 때 가슴을 내보내게도 할 수 있다. 숨쉬기 운동을 할 때에는 숨을 멈추지 말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아령 운동은 매 종목마다 6~20 회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며 준비 정도에 따라 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 또 반드시 매 종목마다 할 필요는 없고 몇 종목씩 선택하여 할 수도 있지만 준비 운동과 호흡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청년생활 소사전

제일 큰 별과 제일 작은 별

현재까지 판명된 데 의하면 우주에는 약 1천 5백 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별은 《마부 성좌의 엡씰론》이란 별(초거성)이다. 그의 체적은 태양에 비하여 거의 200억 배에 달한다. 만일 이 별의 직경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 (300,000km/초)로써도 세 시간 반이 걸려야 한다. 빛이 태양에서 출발하여 지구까지 오는 데 약 8 분 30 초 걸린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별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 현재 알려진 별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별은 소위 《볼프 457》이라는 백색 왜성이다. 이 별의 직경은 지구 직경의 5 분의 1 미만이다. 그러나 그 밀도는 아주 큰 바 태양보다도 10억 배나 더 조밀하다. 따라서 이 별의 성냥갑만 한 크기의 쪼각도 지구에서는 그 무게가 4만 톤이나 된다.

《비타민 C》의 효과

외국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닭의 모이에 비타민 C를 섞어서 준 결과 알을 낳는 것은 23%, 병아리를 까는 비률은 30%나 더 늘었다고 한다.

닭의 모이 한 톤에 비타민 C를 100g만 섞어 주면 닭들이 알을 낳는 량은 종전에 비하여 약 23%나 증가되며 닭알의 무게도 평균 3g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해'빛이 내리쪼이는 낮에 물을 주면 왜 나쁜가?

식물에 물을 주면 잎이나 줄기에 물이 묻게 된다. 이 때 식물의 잎에 묻은 물은 자기의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표면 장력 때문에 퍼지지 않고 물'방울을 형성하게 된다.

이 물'방울들은 마치 렌즈와 같은 역할을 놀아 해'빛을 한 점에 집중시킨다.

렌즈를 리용하여 해'빛을 한 점에 집중시켜 어떤 물질을 태울 수 있는 것과 같이 해'빛이 내려 쪼일 때 잎에 묻은 물'방울은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여 잎에 화상을 입히며 따라서 식물 세포를 파괴하고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해'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식물에 물을 주지 말아야 하며 물을 줄 때에는 물이 잎이나 줄기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첫 선반공



조선 평양 35 호 (人) 사로청원 최 완흥

완수는 한 시간이나 일찍 공장으로 나갔다. 직장에 들어 서니 1 교대 동무들의 진장한 일솜씨가 확 눈에 띄웠다.

더우기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종민이를 보자 몹시 대견하였다.

《종민이 수고해, 오늘은 200 프로쯤 문제 없겠지!》

그 말에 종민이는 돌리던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한 눈을 꿈쩍해 보였다. 그들은 서로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완수가 작업 준비를 하느라고 바이트를 갈아 가지고 돌아 오니 기대는 벌써 비여 있었다. 기대 청소를 대강해 놓고 종민이는 벌써 퇴근하였던 것이다.

(기름을 못 치고 갔군…)

완수는 종민이가 하다 만 청소를 다시 곰곰히 해 놓고 일을 시작했다. 바이트 끝에서는 시퍼런 쇠'밥이 련달아 꼬여 나왔다.

그가 치차 하나를 다 깎고 재로 포금 붓슈를 잭크에 물리려고 하는데 검사원 처녀가 달려 와 뾰로통한 목소리로 《종민 동무가 또 오작을 냈어요…생산 경기라면서 제품의 질은 통 안중에 없으니…》

하며 치차 하나를 불쑥 내미는 것이였다.

그 말을 듣는 완수는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할가? 그는 나의 경쟁자인데…)

그는 붓슈를 손에 쥔 채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차 종민이의 《오작》 난 치차를 자기가 깎기 시작하였다.

…다음 날도 종민이는 경쟁에만 정신이 팔려 대번에 5 밀리를 먹이고 이송도 빠르게 놓았다.

(이쯤 먹이면 오늘은 200 프로 문제 없겠지!)

그는 와삭와삭 쏟아져 내리는 쇠'밥을 기분 좋게 내려다 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축함에서 《따르릉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기대가 스르륵 멎고 말았다.

종민이의 가슴은 덜컥 내려 앉았다.

이 때 그의 눈'길이 완수의 공구함에 가 멎었다.

그는 미십'결에 그 공구함을 열어 보았다.

《이게 뭐야?!》

하마트면 그는 소리를 지를 번 하였다. 《예비 부속함》 안에는 기름칠을 한 치차가 수두룩히 놓여 있지 않는가!

(살림이 제법인데…)

그는 갑자기 자기가 완수보다 뒤떨어졌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웠으나 그래도 기대는 빨리 돌려야 하겠기에 우선 완수의 공구함에서 치차 하나를 꺼내 고장 난 치차와 바꾸어 끼웠다. 그리고는 다시 스윗치를 넣었다.

《종민 동무, 오늘은 오작품이 있거던 아예 가져 오지도 마세요.》

등 뒤에서 쟁쟁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검사원 처녀였다.

《아니 내가 언제 오작을 냈어?》

종민이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듯 한 느낌이였다.

《종민 동무가 깎은 그 <오작 치차>를 어제 완수 동무가 다시 깎아 주었길래 대보수에 지장이 없었지…알기나 하세요?》

《?!》

종민은 말문이 딱 막혀 버렸다. 경쟁에만 눈이 어두웠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종민이는 막 울'상이 되였다. 생산 경기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기대도 막 다루고, 그러고 덤비며 오작을 내고…종민이는 자기가 큰 죄를 범한 것만 같았다.

저 쪽으로 완수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종민이는 그의 모습을 존경어린 눈매로 지켜 보았다. 이 때 종민이에게 있어서 완수는 그저 단순한 벗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한없이 더 높이 우러러 뵈였다.

종민이는 경쟁에서 진 것이 섭섭하기는 했으나 그보다도 오히려 몇 백배 더 큰 것을 배웠다는 생각으로 하여 가슴이 흐뭇하였다.



(시)

나의 손

안변 요업 공장 사로청원 리 자남

학생티 채 가시지 않은 차림새로
나는 여기로 왔다.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공장'길 찾던 때로부터
어언 세 해가 되는구나.

로동의 불'길 속에 뛰여 들어
내 서툰 마치질로 손을 감싸 쥘 때에도
기능공의 일 솜씨 어서 익히자고
그 몇 번 마음 속에 다짐했던가!

때론 퇴근'길 달'빛 아래
갓 잡힌 손'바닥의 물집을 따며
기능공의 매듭진 손 부러운 생각에
애'된 손 지그시 쥐여도 보았고
두 주먹 부르쥐고
—나의 손아 어서 투사의 손으로 되렴
내 그 몇 번 마음 속으로 부르짖어도 보았거니
이제는 내 이 손을 번쩍 높이 들어
엄숙한 맹세를 표시도 하고
이제는 내 이 손으로
영예의 표창장도 받아 가슴에 안기도 하며
창조자의 긍지 느끼고,
아, 오늘은 진정 가슴 뛰누나
억세진 이 손으로
입당 청원서를 썼나니

나의 세 해를 십 년에 비기리!
내 손엔 땀이 준 성스런 대'가
뚝뚝한 징알 듬직히 박혔거늘
동무여! 시뻘건 쇠'덩이라도 가져 오라!
사양 없이 한 아귀에 뭉쳐 버릴 테니,
아직은 크낙한 위훈으로 조국에 보탬 못 주어
버젓이 내 놓기 부끄러우나
무쇠 기둥 다루는 나의 억센 손을
나는 자랑하노라, 자랑하노라
내 일생 로동하는 사람으로
부여 잡은 핸들 더 억세게 틀어 쥐고
혁명의 한 길 내 달려 가리라!

(시)

좋구나! 이러한 밤은…

증산군 농기구 공장 사로청원 리 재극

좋구나, 이러한 밤은…
농장의 탈곡장에 풍년 곡식 나르는
전야에서 뜨락또르와 함께 보내는 이 밤은.
일 잘하기로 소문 난 운전수 총각
처녀들의 일'손 도와
묵직한 벼'단을 씽씽 올리는데
—얘, 뛰여 가 뜰안의 사과라도 따다 드리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 들으라는 듯
련결차에 높다라니 벼'낟가리 쌓는
처녀들의 롱담도 즐겁기만 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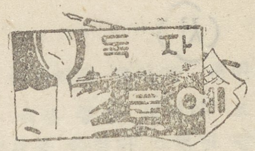
정녕 이런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였더라!
쨍쨍 괭이'날에 불꽃이 튀는
혹한의 뚝가에서 객토를 널 때에도
번개처럼 내닫는 돌격대의 앞장에 서
그대는 그대는 달려 갔더라.

때로는 밤'잠도 잊고 돌격한 그대
다는 알 수 없어라.
몇 번이나 때 늦은 그대의 저녁 밥이
가마 안에서 식어 갔던지는…
몇 번이나 다심한 그대의 어머니
찌개 그릇 화로'불에 고쳐 올려 놓았는지는…

장하여라, 뜨락또르 운전수여!
밤 밝혀 밭 갈고 써레 친 논판에서
오늘은 그대, 만풍년의 기쁨 안고
벼'단을 나르거니

축복을 받으시라, 뜨락또르 운전수여!
발동기 소리로 대지를 흔들며
당의 높은 뜻 받들고 이 땅 우에
황금의 낟가리를 쌓아 올린 사람아,

청춘의 활무대—협동의 전야에서
이 땅의 풍만한 가을을 마련하는
보통 젊은이, 그대는 바로
공산주의 미래에로 조국을 떠메고 가는
이 땅의 믿음직한 주인이여라!



(시)

자랑하노라 나의 직무

해주 수산 사업소 사로청원　　오 필천

나는 바다의 아들,
망망한 바다가 나의 초소다.
오, 자랑찬 나의 활무대
내 너를 떠나서 청춘을 모르노라.
자랑차구나!

그물이 터지게 든 고기 떼를
무쇠 팔뚝으로 당기노라면
어느새 어창은 축 처지고
고기 산에 칠색 무지개가 어린다.

일 년이면 삼백 날을 멀고 먼 해구에서
사철 물'결을 헤가르는 우리지만
아침마다 조국의 태양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는 우리의 환희, 우리의 긍지.

바다 사람에겐 시원한 김치가 똑 제일이라며
손수 배에까지 김치독도 가져다 준 당 위원장
여기로는 대학의 통신 교재도 어김 없이 온다.

《어기 영차!》 먹여 가며 그물을 지휘할 때
흰 물갈기 속에선 고기산이 떠오르고
산대에 듬뿍 고기'더미 배'전에 넘치거니
어로공 된 자랑 파도마냥 가슴에 높뛴다.

가도 가도 수천 리
끝 간 데를 모르는 일터를 따라
담차게 그물을 늘여 가는
꿈 속에 잠겼던 어장들마다에선
태산 같은 고기산이
자꾸만 자꾸만 솟을 줄만 알거니

바다는 나의 가슴
후리'줄—이는 나의 팔뚝
하루 네 기망 쳐 올리는 고기 무지는
조국에 바치는 나의 충성의 마음

어로공—나의 직무!
세상에 더 없는 영예,
내 가슴과 같은 드넓은 일터에서
나의 욕심껏 고기산을 쌓노라
아, 서해랴, 동해랴 그리고 또 남해랴!
나는 당이 준 풍어의 그물 쉼 없이 늘여 가리라!



청년 생활　제 11 호　(루계 182)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1월 4일　발행 1964년 11월 9일

ㄱ—430592　　값 45 전

책소개

심장의 기록

판형; 문고판,　페지수; 48 페지

사람의 일생에서 그가 남긴 최후의 말에는 그의 절절한 념원과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다. 과연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우수한 조국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마지막 시각에 어떤 말을 남겼던 것인가?

새로 나온 책《심장의 기록》에는 1930년대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공화국 영웅들이 가렬 처절한 싸움 마당에서, 놈들의 감방과 공판정 또는 사형장에서 남긴 유언과 일기, 편지 등 30여 건이 수록되였다.

백절 불굴의 혁명적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할줄 모른 항일 투사들과 공화국 영웅들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당과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의 붉은 심장으로 새겨진 이《심장의 기록》에서 우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 전사들의 무한한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들의 백절 불굴의 투지를 력력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그를 거울 삼아 자신의 혁명적 수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발행.

21 세기에로 가는 길

판형; 4×6판　예정 페지수; 250 페지.

《21 세기에로 가는 길》에는《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계》,《원자력 시대는 꽃피고 있다》,《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에서》,《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비밀》,《무진장한 지구의 자원이 개발된다》등 과학의 미래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발행.



(조선화) 어랑 인민들 김 주현 김 대승 작

조국의 한 치 땅도 원쑤놈들에게 내여 줄 수 없다. 어랑 땅의 늙은이, 젊은이, 아낙네들과 처녀들… 그들도 조국 수호의 전렬에 나섰다.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을 위하여 앞으로! 앞으로! 멸적의 포탄 이고지고 싸움터로 나간다.